사무엘하 1 장

1. 사무엘이 죽은지 오래되었다. 그러면 '사무엘하'는 누가 기록했을까? 또 사무엘하에는 사무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름이 '사무엘하'인가?

원래 이 두 권은 구별된 책이 아니라 한 권이었다. 이 책의 앞부분 그러니까 사무엘과 관련된 부분은 사무엘이 쓰고 사무엘 사후의 이야기는 아마 나단이나 갓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혹은 영감을 받은 익명의 선지자 - 모른다는 뜻이다).

삼상, 삼하, 왕상, 왕하 이 네 권은 왕국시대에 관한 기록이다. 이런 왕정시대를 이끌고 시작한 인물로서 사무엘은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삼상과 삼하에서 중요한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일에 직접 관여 했으니까. 기록을 시작하고 왕국 시대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이다.

- 2. 이 아말렉 소년의 보고가 사실과 다른 점을 찾아보자.
 - 1) 병거와 마병이 촉급히 따르는데 : 산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
 - 2) 사울이 자기를 불렀다. (병기든 자에게)
 - 3) 자기가 죽였다 (자결했다)
- 3. 이 아말렉 소년의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터에서 도망 나왔기 때문 (X)

국도의 슬픔을 위장하느라고 (O): 이 소년은 극도로 슬프지 않다. 사울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기는커녕 한 몫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4.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위낙 슬프고 놀라워 냉정하게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조금만 주의하면 이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말렉 사람의 손으로 자기를 죽여 달라고 했다는 말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지 못한 거짓말이다)

병거와 마병이 촉급히 따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으로 피한 것은 병거와 기병 때문이다. 사 울은 결국 활 쏘는 자에 의해 중상을 입었다*)*

5. 이 아말렉 소년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다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증거를 가지고 왔을까 아니면 실제로 용병으로 사울을 따른 군사였을까? 그렇게 대답하는 근거는?

우연이다: 상황 설명에 틀리는 점이 있다는 점,

용병이다: 전쟁터에 우연히 오른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블레셋 군인들보다 먼저 증거품/머리의 면류관과 팔의 고리/을 빼온 점

상황 설명이 약간 다른 점은 거짓말을 하려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면 아마도 용병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6. 아마 큰 상을 기대하고 다윗에게 달려갔던 이 소년이 자기의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알아차렸을까?

다윗이 옷을 찢는 순간부터

- 7. 아말렉 소년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 1) 이 아말렉 소년은 무엇을 기대하고 다윗에게 뛰어 왔는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으니 그 원수를 죽였다고 하면 큰 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2) 이 소년의 행위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리라. 자기가 그렇게 쫓기면서도 손을 대지 않은 그를 이방인이 치다니.

- 3) 결국 이 소년이 죽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 1) 헛된 공명심과 출세욕
 - 2) 다윗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화근이다. 자기 생각과는 다른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어떤 원리가 분명히 있음을 증거해야 한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이한 일들)
- 8. 사울 때문에 죽을 뻔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며, 사울이 두려워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을 자기의 원수로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이라고만 생각함 (coram deo란 것이 바로 이런 것) 동시에 요나단의 죽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함, 비록 몸은 블레셋에 있을지라도 자신은 분명한 이스라엘 민족임: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지(자기중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9. 이순신 장군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 아군과 적군의 사기를 염려한 발언이다. 다윗은 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특히 가드와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라고 하는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기뻐할 일이니까.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말이다.

옷로비 사건의 청문회를 보셨나요? 보면 분통이 터질지도 모른다 싶어 아예 볼 생각도 않았어요. 어떤 집사님이 욕을 욕을 하더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비웃을지 치가 떨리나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대목이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10. 같은 표현을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 문학의 한 특징이다. 19-22에 이런 방식이 몇 번이나 사용되었을까?

6번

11. 기름부음이란 행위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행위이지 방패에 기름을 붓는 일은 의미가 다른 것이다. 기름을 붓는다기보다는 기름을 바른다는 표현이 더 알맞을 것이다. 왜 방패에 기름을 바를까? (cf 사 21:5) 그렇다면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보관, 효율적인 역할을 위해서(미끄러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 바로 앞 구절의 반복이다.

12.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22)는 말이 무슨 뜻 인가?(죽은 자의 피와 용사의 기름에서 죽은 자와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뜻하지 않는다)

과거의 많은 전투에서 물러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음을 말한다.

13. 비록 죽은 두 사람이지만 다윗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어떤 칭찬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스라엘의 용사였다. 많은 적을 물리쳤다(22) 서로 의리와 신의를 지켰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었다. 요나단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다. 싸우는 병기

14. 자신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기이하다고 말한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상 20, 23:15-18)

다윗이 득세를 하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고도 왕의 자리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다윗을 보호 하고 격려했음 - 이런 사랑이 가능한 것은 둘 다 하나님 중심의 뜨거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15. 다윗이 지은 노래가 시편에 수없이 많이 있다. 이 활 노래는 시편에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답하는 이유는?

없다: 아무리 다윗의 시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16. 인생이란 지뢰밭에서 뛰어 노는 어린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도대체 어디에 무엇이 묻혀 있다가 터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뢰를 밟지 않고 뛰어 노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지난 후에 위험했음을 알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모른 채 지나기도 한다. 본문에서 다윗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었으며 어떻게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았는 가?

아말렉 소년에게 속아서 그에게 상을 베푸는 일,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

저도 상고를 다니면서 은행시험을 목표로 공부하다가 주일에 치르는 많은 시험(주산, 부기, 각종 자격 증)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대학으로 방향을 바꾸었는데 도중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색맹인 줄 알면서도 지리과는 색맹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원서를 냈다가 쓴 잔을 마시고 이듬해 영어과로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은행시험에도 색맹은 떨어진 다고 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하더랍니다. 동생이 무심코 전해준 이 한 마디는 고3 때 새벽기도까지 뛰어다니며 고민했던 제 기도의 응답이었죠. 떨어질 시험을 목표로 삼 년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뢰밭을 뛰어다닌다는 제 표현이 심한가요? 은행원에서 대학으로 진로를 바꾼 것이 제게는 일생을 건 모험이었는데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은 이렇게 위험을 피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외국인: 원어상으로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과 달리 개종하여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진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 (타국인과 구별해서 사용함)

사무엘하 2 장

1. 사무엘상의 주연 배우 사울은 비극으로 막을 내리지만 사무엘하에서 주연을 맡은 다윗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 무엇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한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점이 그렇고 시글락을 떠나서 유다로 향하는 것도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그렇다.

2.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고, 새로 세운 왕은 요단강을 건너 멀리 피해갔고, 아마 블레셋과 가까운 유대지방은 주인 없는 땅처럼 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 꼬치꼬치 묻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 어디서 이런 모습을 보았더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삼상 23 장에서)

3.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일일이 물어야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른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해서 손해 볼 일 없다. 사실은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4. 다윗이 유다 쪽속의 왕이 되었다. 본인은 감격스러울지 모르지만 역사에 길이 남을 큰일은 아니었다. 왜 큰 사건이 못되는가?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블레셋에 패하여 일부가 망명정부를 세운 힘없는 나라의 작은 지방의 왕이니 누가 주목했겠는가?

5. 다윗이 유다 쪽속의 왕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큰 사건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오래 전에 예언되었던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이다. 누구의 어떤 예언인가? (예수를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참고)

메시야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좁게는 야곱의 유언에 왕이 나오리라는 예언 (항 49:10)

6. 암몬 쪽이 쳐들어와서 항복조건으로 눈을 다 빼라고 했을 때 사울의 도움으로 구원은 받은(삼상 11)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용기를 내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수습한 일(삼상 31)에 대해서 다윗이 거 하던 헤브론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꿰 먼 거리임에도 거기까지 사신을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는 이 유는? 작전상일까? 진심일까?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므로(사울의 추종자)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울에 대한 반역이 아니란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

사울의 시신처리에 대하여 감사,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사람의 동기가 100% 순수하기란 정말 어렵지만 다윗의 과거를 돌아보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진심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일에 대하여 이렇게 따지는 일도 그리 잘하는 짓은 아니다. 가능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자. 바보처럼

- 7. '유다 족속이 네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느니라'는 말씀은 '이제 내가 왕이다'란 뜻인가? 유다의 왕으로서 너희들의 한 일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 즉 사울의 임무를 내가 맡겠다. 암몬 쪽과 같 은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겠으니 힘을 내라는 말이다.
- 8. 이스보셋은 일종의 망명정부를 세운 셈이다.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은?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중국 본토를 버리고 대만으로 건너간 장개석 총통처럼)

9. 사울 대신에 실권은 누가 잡고 있는가?

아브넬

10. 나중에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한 후에야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를 옮기게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기간과 이스보셋이 왕위에 있던 기간은 비슷해야 할 텐데 왜이렇게 차이가 날까?

아마 전쟁에 패하고 마하나임으로 도망간 임시정부의 구성이 어려워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러 해가 걸렸던 모양이다.

11. 다윗이 왕이 된 것과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을 비교해 보자

다윗: 하나님의 예고, 유다 지파의 추대,

이스보셋: 아브넬의 정치적 야망에 의한 허수아비

12. 同族相殘이라고 했던가?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가?

12, 29(32) - 별과 이스보셋: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헤브론에 더 가까운 요충지/에 이르고

13. 장난하게 하자 했는데 장난이 아니다. 말을 바꾸어 보자.

이렇게 질질 끌게 아니라 누가 죽고 누가 살든지 간에 한판 붙자, 백병전으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머리채를 잡고 칼로 찔렀다는 말은 방패도 없이 싸웠다는 말이다.

14. 17절에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했다'고 했는데 18절부터 싸운 내용은 무엇인가? 17절은 요약, 18절부터 추가 설명(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곳이 많다)

15. 아사헬과 아브넬 두 사람만 놓고 보면 누가 잘못인가?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함, 아사헬은 죽어도 아브넬을 잡으려함- 지나친 공명심?

16. 아사헬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는가?

지나친 공명심 때문이겠지만 걸음이 빠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의 작은 능력을 너무 과신하게 되면 도리어 화근이 되기도 한다. 물에 빠져 죽지 말라고 수영을 가르쳐 놓았더니 수영 좀 한다고 함부로 물에 뛰어들어 익사하는 경우처럼.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처럼 빠르더라 - 이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압살롬을 소개할 때 머리카락이 길고 아름답다(삼하 14:26)고 말한다.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

17. 賊反荷杖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보자.

26: 자기가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불리하니까 참혹한 일이 생길 줄 몰랐느냐?

18. 이 일로 인하여 나중에 아브넬은 다소 억울하지만 요압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그러나 아사헬의 죽음에 대하여 아브넬은 변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무엇인가?

도망가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한 점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

창 뒤끝으로 찌른 점 (죽이려는 의도보다는 경고의 의미로, 칼을 어떻게 잡고 찌르느냐에 따라 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19. 아사헬을 죽이지 않으려는 이유가 그 형 요압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한다(22). 이 말은 어떤 느낌을 주는가?

적과 내통: 적과 싸우는 장수가 싸움을 회피하거나 적장에게 잘 보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은 반역이다. 싸움을 자신이 시작해 놓고도 이기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싸움을 피하는 느낌이다.

20. 베냐민 족속은 왜 이렇게 충성스럽게 아브넬을 따르는가?

죽은 사울이나 허수아비일지라도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이 베냐민 지파니까

21. 아브넬의 간교함은?

싸움을 먼저 걸어놓고 불리하니까 형제 운운함.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꿰 멀어 보이는데 세력을 확장하려는 점에서 먼저 전쟁을 시작한 모양이다.

22. 아브넬이 간교하다면 요압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어떤 점에서?

무모하게 형제간의 싸움을 걸어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애매하게 용사들을 죽게 한 점에서, 오기 부리듯이 아브넬을 추격한 점에서(27) - 힘이 있으면 휘둘러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가? 그래서 힘이나, 돈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특히 신학교만 나오면 어때 힘주고 다니는 나이 어린 목회자들, 젊은 사장, 젊은 박사들은 명심할 일이다. 요압이 오기 부리듯이 맞장구를 친 것은 수양 부족, 자만이다.

- 23. 성명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기록은 꼬이고 있다. 주범은 아브넬이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 1)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허수아비 왕을 세움
 - 2)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윗과 싸움을 자청함

혼단(釁端): 서로 불화하거나 다투게 되는 실마리, 달라지는 시초.

"물론 우리 자신들로서는 반성해야 할 점이 많겠지만. 실은 그네들이 우리들에게 다 혼단을 걸어 놓구는 나중 이러쿵저러쿵 트집을 부려댑니다그려" - 이주홍의 「철조망」 중에서 -

사무엘하 3 장

1. 다음 중 제일 불쌍한 사람은? 왜?

이스보셋: 실권이 없는 왕, 항상 신하의 눈치나 봐야 하는 처지

발디엠: 멀쩡하게 마누라를 빼앗김

다윗: 빼앗긴 첫 사랑을 찾아오는 아픔, 권세부리는 신하를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왕

리스바: 왕의 첩으로 있다가 왕이 죽고 실세에게 농탁을 당하기도 하고

미갈: 정치적이 이유로 남편을 빼앗기고 재혼한 남편을 또 버려야 하는 처지

아브넬: 한 밑천 잡아 보려다가 쫄딱 망한 사업가(?)

이 사람들의 비극은 전부 사울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 싫어버린 바 된 사람과 관계되는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조차 불행의 씨앗임을 잊지 말자.

2. 가장 가치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유다의 개 대강 = 적군의 개(명멸의 대상) 대가리

3. 1절의 전쟁은 실제로 전쟁이라기보다는 서로 대치한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 치하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차츰차츰 다윗에게 기울어진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17-19절

4.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면 왜 전쟁이 오래 가는가? 그냥 한 방에 끝을 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 될 텐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통일이 될 듯싶으면 오히려 막기까지 하시는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차츰차츰 순서대로 가시는 분,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도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았다. 출 23:20-30

5. 무슨 아내가 이렇게 많아? 다윗이 여학생에게 존경을 받기는 다 틀렸다. 요즈음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겠지만(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 가서 분을 풀기로 하고) 옛날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크게 시빗거리를 삼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 기록의 목적은 아내가 많음을 자랑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사울의 집안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즉 무슨 의도인가?

암논 -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

길르압 -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압살롬 -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

아도니야 - 학깃

스바댜 - 비탈

이드르암 - 에글라 (솔로몬은 어디 갔노?)

자식의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하려는 것 사울의 몰략

솔로몬은 태어나지 않았다. 아직

6. 다윗의 많은 아내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고른다면? 왜?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그가 정략적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이다. (그로 인한 압살롬의 반역도 그 결과?): 다윗의 삶이 항상 본받을 만한 것만 있었던 것은 결코아니다(주로 여자 문제지만). 많은 인간적인 결점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었던 점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을 누리는 원인이 된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결점 투성이 인간?

7. 고대에 죽은 왕의 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왕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스보셋이 아브 녤을 책망한 것도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브넬의 대답을 이스보셋의 책망에 어울리게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정치적 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조를 보호해 왔다.(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 증명하겠다)

8.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다윗에게 옮겨 가도록 하겠다는 말은 신앙적인 발언인가? 아니면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실권을 잡은 채 다윗과 싸운 것은 자신이 불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유리하면 따르지 않는 행위이며 결코 신앙적이 아니다(기회주의자): 성경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이미 성경이 아니다. 부부싸움이나 부자지간의 싸움에 말씀이 잘못 적용되는 예는 아주 많다. 말씀은 항상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 9. 아브넬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은 원인은 무엇일까?
 - 1) 전투를 계속했으나 점점 쇠약해지니까 일종의 포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 다윗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보고 포기함 (1, 7)
 - 2) 자신의 잘못(전왕의 처와 통간함)에 대한 비난

- 3) 백성들이 여러 번이나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했음(7)
- 10. 아브넬의 세 가지 잘못은?

신하가 왕에게 공갈친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따른 것, 공이 있다고 잘못을 공으로 때우려는 것

11.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예언된 것이며 시골의 여인도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아브넬의 견해는 무엇인가? 물론 자신의 착각이지만.

자신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12, 21) 자신이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으나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실패함,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아브 녤처럼 기회나 노리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윗도 그것을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면(조급함) 잘못이다.

12. 자신에게 이미 여러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미갈을 왜 데려오라는가? 여러 사람이 또 불행해지는데. 만약 다윗이 아직도 미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삼상 18-19)?

- 1) 첫사랑(블레셋인의 양피 일백을 주고 구한)
- 2) 죽음에서 구해준 여인
- 3)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타인의 아내가 되었음: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또 하나의 아픔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아픔이 어느 정도일까?
- 13.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고선 왜 이스보셋에게 사신을 보내어 미갈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는가?

아브녤과 주고받은 내용은 밀약에 해당하고 이스보셋에게는 공식적인 절차이며(정당한 권리 요구이기 도 하다) 이스보셋의 명을 받아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사자로 가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함

14.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왕을 무력체 한 것처럼 다윗에게도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다. 그가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 자신의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왕이 자기 모르게 중요한 일을 결정해 버린 것 (자신의 강적이 출현하는 일 - 정치적 야심에 라이벌이 등장하는 일) 왕의 조카를 죽인 놈을 그냥 보냈다?

- 15. 이제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왜 요압은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했을까?
 - 1) 나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원한이 더 크다(굳이 따지자면 보복할 근거도 없다. 정당방위 차 원일 수 있었다).
 - 2) 나라의 통일에서 자신보다는 아브넬이 더 큰 공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 16.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취한 조치는?
 - 1) 요압에게 저주의 말을 함
 - 2)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통함, 애곡함, 애가를 지음, 금식 엄숙하게 장례를 치름
- 17. 명색이 왕인데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잡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 했다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무릇 지도자는 군림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무식하고 어리고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한 자신이 더 이상 자랄 공간은 없다.

18.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의 왕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왕가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보여주고 있다. 물론 다윗의 왕가는 번성을 한다. 번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를 있는 대로 찾아보자.

많은 부인과 아들들, 백성들의 마음(심지어 베냐민 지파까지), 첫 부인을 찾아옴 백탁병자(白濁病者): 임질과 비슷한 유출병환자

(卒가)

1.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진지 오래 되었을 텐데 여전히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6). 군인들이 힘을 발휘하는 상태는 전쟁 중이거나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무사가 실권을 행사하는 법이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오히려 힘을 얻지 못한다.

사무엘하 4 장

1. 사울의 집안은 몰락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집안 꼴이 어떤지 설명해 보자.

심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죄다 반역자들이고, 왕이 된 아들은 암살되고, 아들이라고는 절뚝발이 하나 뿐 (외모를 중시하던 것을 감안하면 도저히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함 - 지금처럼 장애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때와는 다름)

2.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신하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펄끄러운 존재였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말은 반갑지 않은가?

비록 껍데기뿐인 왕일지 몰라도 그나마 자신을 지탱해주는 배경이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강해져가는 다윗의 집안과 아브넬이라는 인간을 배경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사울의 집안

3. 여기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므비보셋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한 대상으로 남은 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사울이 서서히 몰락하는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옳은 것 같다. 권투에서도 시작하자마자 일격에 KO로 이기면 이겨서 기뻐하기보다는 싱겁다는 느낌에서 기쁨이 좀 적다.

4.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몇 번이나 들어갔는가?

죽이려고 들어간 것은 한 번인데, 기록은 세 번인 것처럼 되어있다(5, 6, 7)

5절: 간략하게 설명,

6절: 들어가는 과정,

7절: 범죄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

점진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하는 히브리 표현법 중의 하나일 뿐 세 번 일어난 일이 아니다.

5. 이스보셋이 죽게 된 원인은 대낮에 낮잠을 잤기 때문이다. 게으르게 낮잠을 자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왜?

굳이 이스보셋의 잘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여 자신이 왕이 된 것이지 낮잠이 아니다. 기후 관계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시간에 주로 낮잠을 잤다.

6. 가룟 유다와 여기의 두 사람 바아나, 레갑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도 벌 받은 사람 (8-하나님께서~)

7. 그렇다면 아브넬, 바아나, 레갑 세 사람에게 공통으로 약한 점은?

자신의 이익을 따져서 주인을 배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점 주인을 배신하는 것

- 8. 두 사람 바아나, 레갑의 열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낮잠 자는 사람을 죽여서 밤새도록 행하였다고 했으니 꽤 먼길을 갔다는 말이다. 1) 어떤 마음으로 2) 얼마의 길을 갔을까? 3) 그렇게 열심히 행한 결과는?
 - 1) 큰 상을 받을 것이다,
 - 2) 약 20시간을 걸어서 90km정도(실제로 약 95km),

3) 죽음

9.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도 죽임을 당한 원인은 그 사람들과 다윗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다윗: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죽임 당한 사람들: 왕의 원수를 죽이면 기뻐하실 것이다.

10. 바아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위협적인 존재하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았던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두 사람 바아나와 레갑이 한 일이 다윗의 죽고 사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9)

11. 다윗의 이런 처사를 대국적이라고 말하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절호의 기회를 이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상을 주기는커녕 처형을 해버렸으니... 이런 처신이 어떻게 가능할 때?

자신에게 득이 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먼저 따지는 것 침실에 웬 상(7)? 침상(11)이지 머

사무엘하 5 장

1. 이제 다윗의 과거를 돌아보자.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골리앗과 싸우고 왕궁을 출입할 때는 좋았지만 부인과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하여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 겼고 미치광이 행세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고 사랑했던 부인은 남에게 빼앗겨버렸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그렇게 험난한 시련의 세월을 잘 지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지 살펴보자. (5장 요약인 셈)

- 1) 피 흘림이 없이 자연스럽게 왕으로 추대됨
- 2) 그 때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여부스)을 빼앗음
- 3) 외국에서도 알아줌 조공이 들어옴
- 4)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는 것임을 앎
- 5) 자식이 더욱 많아짐
- 6) 한 때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블레셋을 깨끗이 물리침
- 2.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1-2)은 기분이 좀 나쁘다. 왜?

옛날부터 나를 따랐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태까지 딴 짓을 했단 말이지. 차라리 모르고 그랬다면 용서하겠지만

3. 여부스 사람들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한테는 이긴다고 큰소리치는 이유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면고한 성일 뿐 아니라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다. 지나간 역사에서 그 증거를 찾는다면?

실제로 면고한 성이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커의 400년 정도)

4.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여기처럼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뜻

대략 15세 정도 (제사에 초대받지 못했고, 갑옷과 투구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어렸다) 30세에 왕이 되었으므로 고생을 10-15년 정도

6. 블레셋 사람들이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때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다윗이 등장했으니 말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크게 혼이 난 증거를 찾아보자. (삼상 4)

우상을 버렸다. 블레셋에 져서 법궤를 빼앗긴 사건

7.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민 4:3, 대상 23:3),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 예수님께서 공생 애를 시작하신 나이, 다윗이 왕이 된 나이?

30세: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나이든 사람들의 나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8. 12절에 '다웟이 ~ 아니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전에는 몰랐다는 뜻일까?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말(그 전에는 약속을 믿고 따랐으나 이제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

9. 5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다윗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임으로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 같다. 연대순이 아닌 증거들을 찾아보자.

아들들에 대한 기록과 히람 왕의 기록 (아마 나중의 일인 것으로 추측이 됨, 히람의 즉위문제, 화친의 의사가 생긴 것이나, 궁궐을 지은 것도 정복 초기에는 무리), 블레셋 침공도 예루살렘 정복보다 먼저인 것 같다(17절 참고)

10.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미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어느 나라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울이 살았을 때에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가 다윗이 왕이 되자 쳐들어온 블레셋의 심보와 꼭 같다. 어떤 의도에서 그런가?

자신보다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서로가(남북, 혹은 사울과 다윗) 면제하는 가운데 좀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

11. 바알브라심(흩으심의 主, 흩으신 主)이란 지명은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다. 이유는 지명에 바알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Lord)'이란 뜻으로 좋은 말이었으나 후대에 (우상)의 이름이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다.

사무엘하 6 장

- 1. 오벧에돔의 집에 3달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면 아비나답의 집에는 왜 아무 말이 없지? 그 집에 얼마 동안 있었을까?
 - 1)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왕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때까지 적어도 70년?
 - 2) 삼상 7:1, 20년(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다윗이 쫓겨 다닌 약 20년, 그 사이가 약 10년? 사울이 죽고 다윗이 나라를 완정시킨 때까지 약 20년?
 - 3)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세니까 이 때는 적어도 40은 넘었을 것, 사무엘과 다윗의 나이 차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아버지와 아들(요나단) 정도, 사무엘과 사울의 차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 4) 삼상 7:1, 20년(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사울왕의 재위기간 40년(행 13:21), 다윗의 반쪽 왕 7년 6개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추가로 몇 년 더
- 2. 궤를 모셔오는 것이 정말 즐거웠을까? 아니면 즐거운 척하는 것일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다니?(14) 사람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명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소요리 문답의 대답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즐거운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과 연애하듯
- 3.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데 첫 시도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다. 두 번째와 다른 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무엇인가?

메지 않고 수레로 옮긴 것 - 이건 다윗의 잘못이다. (2절에 메어오려 했는데 누가 수레에 실었나? 아마다윗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궤의 이동에 따른 일반적인 표현일 것)

손으로 잡은 것(웃사의 죽음과 관련된 것)

- 4.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궤라고 예를 갖춘 점은? 그렇게 예의를 갖추면 되지 않을까? 새 수레에 실은 것,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헛일(선한 동기, 좋은 목적, 헌신적인 열심이라도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
- 5.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군사를 3만이나 동원을 하는가? 그것도 전국에서 엄선한(뺀) 용사들로?
 - 1) 원래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것이어서 블레셋과 가까운 곳에 궤가 있었다. 지명의 위치를 정확히 몰라도 블레셋의 영향권이어서 어쩌면 크게 한판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 2) 각 지파별로 사람을 엄선하여 이런 일을 치름으로 민족적인 단합이나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적 차원일 수도 있다.
- 6.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회개할 기회나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이렇게 치시는 것은 하나 님께서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즉각적인 것이었다. 어쩌면 범죄한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우리는 하나 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7. 다윗이 분하여? 忿의 대상이 누구일까?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보아서, 9절의 두려워하였다는 말을 봐서도 하나님은 아니다. 자신에 대하여

- 8. 웃사와 오벧에돔을 비교해 보자.
- 1) 언제 하나님의 궤를 취급하게 되었는가?/참고: 삼상 7장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은 엘르아살이라고 나타난다. 웃사는 엘르아살의 아들일 것이다. 6:3의 아들은 복수형이며 손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웃사: 아마 태어나자마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빼앗겼다가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즉위하기까지 있었으니 대충 잡아도 70년, 그렇다면 웃사가 태어날 때부터 집에 있던 것)

오벧에돔: 하나님의 진노로 웃사가 죽고 난 뒤

2) 어떤 자세로 취급했을까?

 失사: 아비나답은 궤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했다. 즉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야 옳다.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자기 집에 오랫동안 있었던 궤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른다.(하나님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는 상태?) 삼상 7:1(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들여다보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으니) 그저 뒷방 늙은이 취급했을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섬기지만 속으로는 빨리 안 죽나?'

오벧에돔: 두려웠을 것이다. 대상 13:14(모든 권속과 함께 있었다)

거룩히 구별했다는 것: 오벧에돔의 권속처럼 모두가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네가 맡으라'는 식으로 떠넘겨버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내가 할테니 너는 공부만 해라' 소용이 없는 짓이다.

3) 하나님의 궤를 취급한 결과는?

웃사: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다. 대신에 운반을 잘못하여 죽고 말았다. 다윗의 책임도 크다.

오벨에돔: 이 집에는 겨우 석달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 대상 26:1-4에 보면 오벨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매도록 임무를 받은(가드림몬 사람) 고핫의 자손이다. 아마 실수의 원인을 깨닫고 자신이 나섰을 수도 있다. 웃사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궤를 자기 집에 들이려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오벨에돔에게도 억지로 진 십자가였을 것이다. 매를 든 아버지일수록 그 다음에 더 잘 해주는 것을 아는가? 매를 댄 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부자지간이라면)?

9. 9. 10절의 다윗의 행위는 분명히 실수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찾아보지 않고 두려워하고 포기해 버린 것은 경솔한 짓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경솔한 짓임을 알게 하고 싶다. 어떻게?

오벧에돔에게 복을 주심으로

10. 겨우 여섯 걸음을 갔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나?

돌 잔치하는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 옛날에 아이들이 위박 잘 죽으니까 출생신고도 않고 지내다가 돌을 지나면 이제 안 죽겠구나 하고 출생신고도 하고 잔치도 했단다. 지난 번 일로 가슴 졸이며 보다 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렸음을 확인한 기쁨이 아닐까?

11.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찡그리거나 인상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려 함, 고민이 많음(우리)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즐거이 부르고, 나팔을 불고 (다윗)

12. 미갈이 보기에 다윗이 왕으로서의 채신머리없는 행위는 무엇인가?

(백성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인 것을 모름

13. 왕이 어떻게 모든 백성이 다 보고 있는데 뛰놀며 춤추는 행위가 가능한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의 자신을 바로 보았기 때문이다. (3대가 함께 사는 집에서 2대는 아버지인 동 시에 아들이기도하다. 자신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아버지와 같다.)

14. 웃사와 미갈의 공통점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웃사: 하나님의 궤를 평생 동안 곁에 두고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 미갈: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보다 권력 있고 위엄 있는 다윗의 모습만 좋아하는 삶)

15.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 실어서 저절로 가도록 해도 별일 없었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물론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많이 죽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방법을 몰라서) 별 관계가 없으나 다윗의 경우는 내 자식이므로 내 법에 따 라야 한다.

16.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부인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때 부부사이는 어떻게 되는가? 본 문에서 답을 찾으시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 가치관이 다르면 사랑도 식을 수밖에 없다.(불신 결혼이 가능한 것은 신앙 혹은 하나님을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아비나답	오벳에돔
집에 오게 된 과정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옮김	(책임감을 느꼈을 지도)
보관하는 기간	(70년?, 40년?)	3달
보관하는 상태	엘리아살을 구별하여 지키게 함	모든 권속과 함께
결과	복은커녕 웃사가 죽음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림

참고: 대상 13:14(모든 권속과 함께 있었다), 대하 25:24, 대상 26:15 (문지기, 레위인)

주악(奏樂): 기뻐서 연주함

수금: 6줄 악기로 노래할 때 반주를 담당

비파: 일종의 하프 양금: 일종의 탬버린 제금: 일종의 심벌즈

사무엘하 7장

- 1. 이 기록은 아무래도 나중의 일을 미리 기록한 것 같다. 1) 그 증거를 둘 찾으시오. 2) 또 그렇게 바꾸어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주제를 따라서?)
 - 1)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5:11의 기록이지만 시간 상으로는 훨씬 뒷날의 일)
 - 2) 주제가 6장에서 법궤를 운반하고 7장은 그 후속조치라서
- 2.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좋은 곳에 두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 그리 칭찬받을 만한행위가 아닌 것 같다. 1) 왜? 2)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 때문일까?
 - 1) 자기 집부터 먼저 잘 지었는데, 자신이 평안해지니까 생각이 났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하는데.
 - 2)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 (모든 대적을 파한 후에 잘 살게 되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 3. 다윗의 그런 소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척 기뻤던 것 같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이 무척 많아졌으니 말이다.
- 4. 다윗의 그런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의하셨는가? 아닌가?
 - 동의 안함: 뜻은 고맙다. 받은 것으로 하고 복을 주겠다. 건축은 네 아들에게 맡긴다(5, 13).
- 5.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시려는 두 가지 복은 무엇인가?
 - 1) 다윗에게: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심
 - 2) 민쪽에게: 나라의 평안함과 견고함

평안케 하리라(사사시대와 다르고, 거처를 옮기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예전과 달리 평안하리라(10-16).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할지언정 너의 나라가 변고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결국 망하지 않았는가?: 다웟의 위가 영원하리라는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 후에 북쪽이스라엘은 왕조가 수없이 바뀌지만(253년간 평균 30년 미만의 9왕조, 19왕)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로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간다(479년간). 한 왕조를 100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간 점에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끝내는 바벨론에 망하고만다. 그렇다면 위가 영원하리란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에 의해서 끝나버리는가?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다윗(주전 1055-1015) 솔로몬(1015-975): 초대 세 왕은 각각 40년씩

분열왕국시대(975-722: 253년간) 유다만 그 후 136년 더 존속

다윗 왕조는 80+253+136=479, 북쪽 이스라엘은 253년간 9왕조, 평균 30년 미만

- 6.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쏟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 1) 네가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5)? (그럴 능력이 있느냐?: 아빠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하는 어린 아들의 제안)
 - 2) 내가 내 집을 건축하라고 누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6-7)? (내가 좋은 집에 있고 싶어하느냐? 하나님 제서 좋은 집에 있을 마음이 있었으면 그 일을 맡길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여호수아부터 지금까지 사사들 전부가 아니냐? 시키지도 않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일을 다웟이 생각했으니)
- 7. 다윗의 기도를 1) 세 부분으로 나누고 2) 각 부분에 적당한 제목을 붙여보자. 3) 각 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1) 감사(18-21)

(1) 베풀어주신 것만도 과한대 또 장래의 일까지 축복하십니까?

2) 찬양(22-25)

- (1)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3) 让구(26-29)

- (1) 말씀하신 대로 하옵소서.
- (2)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 8. 다윗의 이 기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조금은 문제성이 있는 기도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도한다는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25), 세우리라 하신고로(27)
- 9. 다윗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시23 참조)

10. '다윗의 연애, 바울의 짝사랑' 이것은 다윗과 바울의 신앙과 삶을 비교해서 글로 쓸려고 미리 정해 놓은 제목이다. 어떤 의도에서 이런 제목을 붙이려고 하는지 본문을 참고로 설명해 보자.

바울의 짝사랑: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인생의 재미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온갖 고난을 자초했을 뿐이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그의 전 인생을 다 바쳤지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별로 주시지 않았다. 바울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짝사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니다. 영적으로 한없는 기쁨을 누렸으나 우리 눈에 그런 게 보여야지.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우리 눈에 그렇다는 말이다.

다윗의 연애: 반면에 다웟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실수도 많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별 것 아닌 선물에 과(?)하게 축복을 하시는 것 같다. 어쨌든 다윗은 엄청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됐으니 말이다. 조그마한 선물에 온통 감격하여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는 모습이랄까?

11.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것 같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께서도 선지자의 일과 왕의 일을 존중하고 있음.

12. 다음은 본문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집이다.

1:궁, 2:장막, 5:나의 거할 집, 6:집, 장막, 회막, 7:백향목 집, 11: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13: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16:네 집과 네 나라, 18:내 집, 19:종의 집, 25:종의 집, 26:주의 종 다윗의 집, 27:너를 위하여 집을, 29:종의 집(×2)

1) 그 중에 가장 큰 집은?

5: 나의 거할 집 - 하나님의 집이니까?

2) 가장 초라하다는 뜻으로 쓰인 집은?

장막 회막

3) 가장 갖고 싶은 집은?

11: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겠다는 뜻

11: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 16:네 집과 네 나라 = 27: 너를 위하여 집을 - 하나님께서 다웟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가리킴

사사들의 때: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고 고통스러웠던 때

10절의 '옮기지'는 원어로 '두려워 떨지'로 번역해야 옳다.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규례(레19:18)에 따라 한 인간이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줌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극진한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나이다.

사무엘하 8 장

- 1. 이 장은 어떤 느낌을 주는가?
- 1) 잔혹한 전쟁기록이다.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하는가?: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전쟁은 참혹하다. 정복 전쟁이 불가피하다 해도 국가간의 전쟁은 결코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인류애라는 것이 발붙일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에도 은혜롭기보다는 잔혹한 전쟁의 기록이 아닌가?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가? 많은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도 싫어하십 그래서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미룸(대상 22:8). 아담의 범죄 이후 끊이지 않는 전쟁은 당연한 형벌인지도 모른다. 기도하자. 우리 시대에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2) 은혜로운 약속의 성취이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지 1,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예언일 뿐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하필이면 다윗에게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영광이 아닐까?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3) 다윗의 왕국은 메시야 왕국의 상징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다윗처럼 모든 영적 적대 세력을 정복할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최후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자.

2. 다윗이 이렇게 흥왕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6, 14). 그러나 이런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시련의 시기를 잘 넘겼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훌륭한 선수의 홈런 한 방이나, 한 게임의 승리에 감격하지만 그 한 방이나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한 보이지 않는 고통스런 노력에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메시야 왕국의 예표이기도 하다.

3. 이스라엘의 대단한 영토의 확장이다. 동서남북으로 정리해 보자.

동 - 모압, 서 - 블레셋, 남 - 에돔, 북 - 다메섹

다메섹(유브라데: 세계지리에서는 이스라엘의 동편이지만 이스라엘의 바로 동편은 황무지요 산악지대다. 그 산악지대를 넘어서 유브라데로 통하는 도로가 없다.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유브라데는 북쪽이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참고로 할 것)

4. 3분의 1과 3분의 2라는 표현이 있는가?

두 줄 길이는 죽이고 한 줄 길이는 살리고. 두 줄 길이는 어른과 한 줄 길이는 아이 혹은 노약자(?)라고 해석하기도 함

5. 원수의 원수는 내 편이다. 누구의 말인가?

도이

6. 병거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전차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것을 폐기처분하는가? 내용 면에서 가장 비슷한 기사를 다른 성명에서 찾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신17:16): 더욱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있으려면 보존하는 것이 옳으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드온에게 32,000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임을 확인하려면 자신은 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끽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군사들마저 하나도 없이 다버리라는 뜻은 아니다. 말씀 우선으로 살자.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란 것은 아니다.

- 7. 다음 구절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해 보자.
- 1) 창 15:18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위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강에서부터: 에돔에 수비대

유브라데까지: 다메섹 아람에 둔 수비대

2) 창 27:40 -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에돔에 수비대를

3) 민 13:21 -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하맛 왕 도이가 화친을 청함

4) 민 24:17-18 -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 마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모압과 에돔의 정벌

8. 적의 성을 占領하는 것도 어렵지만 守成이 더 어렵다는 옛말이 있다. 점령을 위해서 용감함과 지혜 가 필요하다면 수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公과 義

公: 공정함

義: 법, 특히 하나님의 법에 따름 - 왕이 되어서 이런 법에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신발 신지 말라고 하는데 신다가 걸린 학생이 선생님은 왜 신어요? 명답은 니도 선생 돼 봐라였다나. 모두 법대로 살라하고 자신은 법대로 살지 않는 경우와 자신이 곧 법이다라고 외치는 심경을 우리가 이해하곘는가?

9.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이제야 다 이루어졌다. 다윗 왕국의 영토도 아주 확장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란 약속이다. 이 약속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웃나라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셨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진정한 순종을 이룬 예수님에 의해 영적인 왕국으로 대치, 계승되어 영원히 이어 지고 있다.

10. 끝부분은 요즘 말로 조각에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에 요압, 문공부 장관에 여호사밧, 법무부(?) 장관에 스라야라는 식인데, 그러고 보니 중요한 직책이 하나 빠졌다. 브나야가 맡은 것일 텐데 무엇일까? 실제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여러분이 왕의 입장에서 조각을 해보면 빠진 직책이 있다. (제사장 제도는 일반적으로 없으니 예외로 하고)

직할대 대장 = 수도 방위 사령관, 친위대장, 경호대장 (나중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다윗을 보호했으며(15:18), 아도니야의 음모에서 솔로몬을 보호한 것도(왕상 1:38,39) 이들이다)

하맛: 다메섹 북부(예루살렘 200km) 오론테스 강가

마병 1,700: 대상 18:4에 따르면 병거 1,000, 마병 7,000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상의 기록이 정확한 것으로 인정됨

사무엘하 9 장

1. 시바는 므비보셋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전 주인의 아들이었지만 재산도 권력도 다 없어 진 주인의 아들을 얕잡아 보고 있었다. 그 주인의 아들이 다시 왕의 주변에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는 그의 모습이 잘 드러난 말은 무엇인가?

절뚝발이니이다: 아무 소용도 없는 인간인데 찾아서 뭐 하시게요?

2. 네 주인의 아들을 공궤(=부양)하라고 하면서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는 말은 모순이다(10). 모순이 되지 않게 뜻을 풀이해 보자.

네 주인의 아들을 공궤하라의 아들: 므비보셋을 중심으로 한 그 가족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그를 왕의 가족으로 대우하곘다.

3. 므비보셋의 유아기:

왕자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전쟁에 패하여 도망할 때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다(4:4, 다섯 살 적에).

4. 므비보셋의 소년시절:

삼촌이 왕이 되어 몇 년 마음 놓고 살았다.

5. 므비보셋의 청년시절:

삼촌이 암살되자 다윗을 피하여 로드발(이름 뜻: 목초가 없는)의 집에 숨어 살았다. 모든 재산은 시바가 가로채버림 아마 숨어서 살았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본문에 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겨우 찾았으니까.)

6. 므비보셋이 다윗을 만난 이후: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겁이 났으나 그 다윗이 조부의 모든 재산을 되찾아주고 왕자처럼 대우해 주었다.

7. 절뚝발이 므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로 일가를 이루고 나중에 후손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용사가 많이 나온다. 그것을 염두에 둔 말이 있다면(대상 8:34-)?

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8. 시바의 일생을 전, 후반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전반부: 이스보셋의 신하로 있었지만 자기가 섬기던 왕이 죽고 왕족들이 다 숨어버리자 사울의 재산을 자신이 착복하여 잘 살고 있었다. 아들이 15에 종을 20이나 데리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이다. 왕족들이 보이면 공갈이나 쳐가며.

후반부: 재수 되게 없다. 어느 날 모조리 빼앗겨버리고 자신도 다시 종의 신세로 전략하고 말았다.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치게 될 줄이야. 사필귀정이었지만 시바에게는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모른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나중에 다윗이 피난 갈 때 본색을 드러내어 므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시 모든 재산을 가로챈다(삼하16:1-4).

9. 위의 두 사람의 인생은 가히 인생유전(돌고 도는 게 인생)이라 할 만하다. 이런 변화를 겪다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다윗의 등장: 다윗의 신실함(요나단과의 우정, 약속을 잊지 않은 탓),

다웟이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 그 동안의 모든 억울함이 충분하게 보 상되고 남을 것이다.

10. 다윗 왕국은 여러 면에서 메시야 왕국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는 것은 메시야 왕국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시바와 므비보셋에게 되어진 일로 판단하进대 이 메시야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공의로운 나라(공의로운 심판): 특히 므비보셋이 보기에는 이럴 수가!

은혜로운 나라(가난한 자와 눈 먼 자, 저는 자에게 복음이)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나라, 므비보셋이 누리는 복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다.

11. 본문에 나타나는 메시야 왕국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을 더 찾아봅시다.

잃은 모든 것을 회복: 에덴동산에서 잃은 것부터 다 회복될 것임

예루살렘에 거함: 새 하늘과 새 땅, 특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하나님의 도성)에서 거하게 됨. 서울 한쪽 귀퉁이 다락방에서 살았더라도 시골 가면 서울내기라고 폼 잡을 수 있다.

양자로 삼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

12. 3절의 '절뚝발이니이다'와 13절의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는 말의 의도가 어떻게 다를까?

3절: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불러서 무엇하곘습니까?

13절: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13. 므비보셋의 변모를 본문에 있는 말을 이용하여 설명한다면?

사무엘하	성경공부		9:1~	1.
------	------	--	------	----

죽은 개 같은 자 왕자 중 하나(에시야 왕국의 특성 중 하나: 장차 우리의 변모될 모습): 므비보셋은 자신의 이런 변화에 대하여 다윗에게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다.

14. 므비보셋이 누리는 감사와 감격은 비단 그만의 것은 아니다. 또 누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다윗 자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므비보셋에게 베푸는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3)이라고 말한다.

사무엘하 10 장

1. 1절의 그 후에란 말 때문에 또 헷갈리는데 8장에 암몬 쪽을 정벌한 기록이 있지만 여기서는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기 기록은 8장 기록의 구체적인 기록일 것이다. 숫자상의 차이도 다소 보인다. 아마 여러 번 싸운 기록일 것이다. '그 후에'란 말도 시간의 전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닌 단순접 속사란다. (8:1도 마찬가지)

2. 나하스? 어디서 본 사람이지?

베냐민 족속이 살던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서 웃겼던 사람 (삼상 11)

3. 다윗이 나하스에게 무슨 빚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울에게 혼이 난 적이 있다(삼상 11). 그후에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둘 사이가 좋아졌을지도 모른다. 그냥 추측해 보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일로 사울의 적이 된 다윗을 몰래 도와준 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것을 나하스가 기뻐이 축하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축하 사절을 보냈거나.

4. 어떤 이유에서권 다윗이 나하스에 대하여 호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은 영토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적이 되어 망하기로 결심했으니 이스라엘의 나라 확장이라는 입장에서는 호박이 절로 굴러온 셈이다.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가? 누구는 뒤로 자빠져도 코를 팬다는데?

복은 따라가며 잡는 것이 아니라 굴러와야 한다고 했다. 재물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안의 삶이 있다. 이만수의 홈런 한 방이 그렇고, 수초 만에 수억의 대전료를 번 복서도 그렇다. 사람의 일도 그렇거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5.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녀석들 때문에 다소 마음이 상하는 일일수도 있지만... 민족의 입장에서는 잘 되어 가는 일이다. 암몬 쪽은 왜 이런 비극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가?

남을 너무 의심한 탓이다.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신이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다윗의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성실했기에 시 23편이 가능했음) 경찰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의심해야 하는 직업은 인격상 좋지 못하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좋다고 여기기만 해야 하는 직업이 차라리 났다. 우리도 직업상의문제가 아니라 늘 그렇게 여기고 살자. 못난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면 잘난 자식이 되는 수가 있지만잘난 자식마저 욕심부리다가 망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학생이 학교나 선생님께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윗의 위세에 지레 겁을 먹은 탓: 자신감, 최후의 승리,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 부모가 자식을, 바람난 남편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 대인관계에서 겁먹지 말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 원만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6. 수염 자르기와 중동볼기까지 옷을 자르는 것이 어떻게 모욕이 되는지 생각해 보자. 아니면 비슷한 예를 찾아보던지.

수염 자르기: 우리나라에서는 수염을 태우는 바람에 무신의 난까지 일어난 적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수염은 자유인의 표시이다. 자른다는 것은 노예란 의미가 있었다. 내시는 수염이 없다.

옷을 자른다는 것: 속의 내의를 사람들이 입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알몸을 드러냈다는 뜻이다. 그렇게 보면 다윗이 춤추다가 옷이 흘러 미갈에게 핀잔을 들은 것이 그럴만한 일임을 알 수 있다.

7. 이 전쟁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하러 가는 요압은 즐거운가? 어차피 이길 전쟁인데?

아니다. 두렵기는 매 한 가지다. 나름대로 머리도 굴리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한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두려움이나 아픔마저 없애버린다는 말은 아니다(마약처럼). 그 모든 아픔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나갈 힘을 주시는 것이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인간의 본성마저 변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 8. 이번 전투가 어떨지 요압의 말과 태도에서 다음 질문의 답을 찾아보자.
- 1) 암몬의 군대와 용병들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 (1) 자신이 직접, 먼저 용병과 싸우려함.
 - (2) 뺀 자 중에서 뺀 자(정예 군사)로 돌격부대를 편성한 점
- 2) 이번 전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증거는?
 - (1) 요압이 그렇게 신앙적인 인물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점(신앙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대단히 어려울 때이다)
 - (2) 도망간 암몬 쪽의 성을 치지 않고 그냥 돌아온 점

(3)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9. 보통 강 건너편이라 하면 요단강을 말한다. 여기서는 다른 강(16절)이다. 앞에서 본 기억을 살려서 생각해 보자. 어느 강일까?

유브라데 강(다윗 왕국의 영토가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말한다. 8장에 이미 나왔던 사실인데 사실을 더 상세하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

10. 요압이 참 신앙적이다?

요압은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인물이다. 우리아를 죽인 것이나, 압살롬을 처리한 것, 아브넬을 죽인 것 등등. 다만 다윗의 영향을 그렇게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위대한 신앙인 옆에서 신앙의 물이 좀 들었다고 할까?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서자.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자.

11. 어쨌건 일은 참 잘 되어간다. 암몬 쪽이 바보짓을 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크게 싸울 이유도 없는 아람 쪽이 전쟁을 걸어오고 결과적으로 아람을 정벌하여 그 옛날 유브라데까지 경계가 되리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것 참. 이번 전투가 암몬과의 전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이 친히 온 군대를 이끌고 나간 대전투였음

중동 볼기: 엉덩이 바로 아래

사무엘하 11 장

1. (10장에서) 암몬 자손들이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니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해버린 기사가 있었다. 왜 싸워서 성을 빼앗지 않았을까? 첫째 원인은 그 성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이겠지만 11:1절을 보면 또 다른 원인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일까?

시기가 좋지 않았다.(봄이 왔음, 겨울은 우기이기 때문에 전쟁도 쉰다)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1월/아빕월/은 태양력의 3, 4월에 해당한다.

2. 다윗의 잘못은 무엇인가?

몰래 본 것, 보고 누군지 알아본 것, 불러서 동침한 것, 우리아를 집에 보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한점, 정신이 희미해지도록 술을 먹인 점, 충성스런 신하(들을)를 죽게 한점, 밧세바를 데려온 점, (우리아와 비교하면 동료의식이 없음) - 신앙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이 모양이라면 모든 남자들에게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뜻

3.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다. 많은 후배들의 기를 꺾어놓을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던 다윗이 이렇게 잘못을 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한창 전쟁을 치루는 시절이 지나가고 국내외적으로 거의 완정을 찾아서 평안해졌을 때 마음마저 느슨 해진 탓 - 이만하면 됐다고 마음을 놓을만할 때 신앙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 - 왕들이 출전할 때로 온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우고 있는데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으니.

4. 밧세바의 잘못은?

눈에 뜨이는 곳에서 목욕을 한 것(다윗을 유혹하기 위한 것? - 당시의 풍습이 그랬을 뿐이고 남의 마당을 내려다보는 것은 금기사항이었다고 함), 왕이라고 쉽게 통침한 것, 남편이 죽자 쉽게 다윗을 따른점

5. 집에서 쉬지 못하는 우리아의 말에서 그를 칭찬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상관에 대한 충성심, 동료에 대한 인간에(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요압과 신복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편히 쉴 수 없다. -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은 둘인가? 하나인 가?라는 이야기와 비교)

6. 순간적이긴 하겠지만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유는?

다윗(집에 가서 자라는데 안 가?)과 요압(느닷없이 가장 충성스런 신하를 죽이라니? 아무런 말없이 실천하는 것은 보면 아닐 수도)

7.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편안함(여유로움 전쟁 중인 이스라엘) - 먹고 살만 하면 다른 일이 터진다.

본래 좀 밝힘(부인이 많은 걸로 보아서) - 남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일

8.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4절의 이 말씀은 원문에 따르면 '동침한 후 그녀는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다'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레 15:18의 목욕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결의식을 잘 지키는 셈이다. 이에 대하여 한 마디 해보자.

그들이 씻어야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의식적 정결에는 신경을 쓰면서 이런 범죄행위에는 신경 쓰지 아니함 - 도둑질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고 영업이 잘 되도록 고사를 지내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음)

9. 단 한 번의 부정으로 임신이 되었을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죄는 신속하게 열매 맺는 법이다)

10. 밧세바가 잉태한 사실을 왜 알렸을까? 책임지라고? 레 20:10을 참고 하자. 우리아는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인다.

간음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함

11. '발을 씻으라'이 말은 먼지가 많고 권조한 사막 지역에서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가리킨다. 즉 쉬라는 인사다. 이 좋은 인사말이 여기서는 어떤 음흉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자기로 말미암은 아이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 함.

12. 우리아는 예루살렘에 며칠 있었을까?

이틀: 12절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에서 우리아가 가려는 곳은 전쟁터이다. 이 말이 집으로 보낸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13절 때문인데 이 구절은 12절의 상세한 설명이다.

13. 굉장히 너그러운 말 '말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를 흔히 쓰는 우리말로 바꾸어 보자. 그리고 이 경우에 이 말은 너그러운 말이 아니다. 왜?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 자신에게 너그러운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다.

14.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유는?

- 1) 우리아: 마누라 도둑 맞고, 충성스럽게 싸우다 죽음 (죄가 있다면 마누라가 이쁜 죄 어쨌든 죄가 있다)
- 2) 우리아의 죽은 이유를 감추기 위해서 함께 싸우다가 죽은 다른 신복들

15. 여룹베셋의 본래 이름은 여룹바알이다. 바알의 신당을 때려 부셨으니 바알이 쟁론할 것이다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후대에 바알이라는 말을 싫어하여 고쳐진 이름이 여룹베셋이다. 다른 이름 즉본래 이름은 무엇일까?

기드온(문맥상 몰라도 관계없음)

16. 요압도 비판을 받는다면 어떤 비판을 받게 될까?

충성스런 신하를 죽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의문이나 다른 권의를 생각해 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신복들을 죽게 했으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위대한 장군도 아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인배일 뿐. (어쩌면 함락시키기 어려운 탑바 성을 무리하게 공격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공격하는데 우리아 뿐만 아니라 다른 유능한 신복들까지 활용해버린 경우일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자신의 공을 세우기위한 기회로 활용하다가 더 많은 신하까지 죽임) 다른 때에는 다윗의 명령을 가끔 무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에는 반대 의견이나 권의 한 번 없이 실행에 옮긴다.

사무엘하 12 장

- 1. 나단의 비유에 나오는 다음 말은 각각 누구/무엇를 가리키는가?
 - 1) 부자 다윗
 - 2) 가난한 자 우리아
 - 3) 양과 소 여러 부인들
 - 4) 작은 암양 새미 밧세바
 - 5) 어느 행인 대상 없음
- 2.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때는 다윗의 범죄행위 이후 얼마만인가? 시간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있는가? 아이가 출생한 이후이니 1년 정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느린 하나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동작이 느릴까? (스스로 회개하길 기다림?) 우리는 대단히 조급한 편이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은 주원인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3. 다윗의 반응(5, 6절)은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4배로 갚아야 한다는 말인가?
 - 둘 다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하시되 아들이 죽음)
- 4. 나단의 비유를 듣고 노하는 다윗을 보고 생각나는 성경구절이 있다면?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는 보는 사람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의 티를 빼라 하느냐(마 7:3,4)

- 5.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실 때(7,8절) 사실과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근동의 풍습이 후계자가 전왕의 첩을 차지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 즉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다는 뜻이다. 김치가 없는 데서 김칫국 마시지마라 해도 말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
- 6. 본문의 의도와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스런 세월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무엇 때문인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7)

- 7.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형제를 미위하고 속이거나 실족케 한다면 우리의 죄목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9,10)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고전8:11)
- 8.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결국 용서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벌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벌을 받게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대조해 보자.
 - 1) 우리아를 칼에 죽게 한 것 네 집에 칼이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암논의 죽음, 압살롬의 반란, 아도니야의 죽음, 왕국의 분열로 인한 반목)
 - 2) 은밀히 밧세바와 동침한 것 그 사람이 네 처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 3)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것 그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 9. 아이의 죽음에 대해 다윗의 태도에서 신하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도 슬퍼하던 아버지가 죽고 나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

- 10. 신하들의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다윗의 어떤 면 혹은 어떤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곘습니다. 감정까지도 -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끗하게 섬기는 태도, 본래 그 의 모습으로 돌아옴
- 11. 다윗이 이레 동안이나 울며불며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묵살했나요?

들어주셨다: 대신에 솔로몬을 주심(매를 댄 아버지가 순종하는 아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경우) - 밧 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이유(사실은 솔로몬의 위에 밧세바가 나은 다른 형들이 있었음에도 여기에 솔로몬의 이름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음을 밝히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 들어주셨다: 결국 아들이 죽었으니(좁게 보면 옳은 답일 수 있으나 넓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12.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솔로몬 때문일까 다윗 때문일까?)

자기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기뻐이 순종하는 다윗 때문

13. 다윗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을 잊은 탓이요, 정욕에 이끌린 탐욕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 그 회복과정이 참으로 기독교적이다. 설명해 보자.

범죄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탓이지만 회복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신 탓이다. 1년 가 마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스스로 돌아서지 않았다. 적어도 나단이 준열하게 꾸짖기 전까지는.

14. 랍바성은 두 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즉 왕이 거하는 '왕성'과 수원지를 지키는 '물들의 성'이 그것이다. '물들의 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별로 감동적인 느낌이 없다. 이스라

사무엘하 성경공부 ------ 12:1~31

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는 말일까?

사막기후에서 물들이라는 말은 생명선처럼 귀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15. 전쟁은 요압이 지휘해서 다 이겨놓고 항복받는 일만 다윗에게 넘겨 승리의 공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은 아부인가? 충성인가?

윗사람을 그렇게 모시는 것도 좀 배워야 한다.

훼상(毁傷): 몸에 상처를 냄

더 연구: 솔로몬은 언제 출생? 밧세바의 몇 번째 아들인가? (삼하 5:14-16, 대상 3:5)

사무엘하 13 장

1. 1절의 '그 후'란 언제인가?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후 (솔로몬을 낳은 후는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2. 다말이란 이름이 안 좋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다. 그냥 재미로 또 다른 다말 이 성경에 나오는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쌍둥이를 낳은 유다의 며느리

3. 암논이나 압살롬을 말할 때 그냥 형제간이라고 하면 쉬울 텐데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을 각각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절)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4. 암논은 참 바보같다.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다. 어떤 점이?

사랑한다면 용감하게 뛰어들어 볼 일이지 병들어 눕다니? 동생을 범하기 위해서 작전을 쓰고 있는 꼴이

5. 암논이 실제로 병이 들었는가? 아니면 병든 체 하고 있었는가?

병: 심화로 병이 되니라, 요나답의 눈에 파리하여 가는 것이 보였음

병든 체: 5, 6절, 동침하자. 병든 놈이 어떻게 여자를 밝혀?

실제로 병이 든 것은 상사병이고, 병든 체한 것은 다른 병

6. 다말은 암논이 사랑하면서도 쉽게 근접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누이: 우리 식으로 하면 동성동본, 근친간에 혼인 금지,

처녀: 동정녀란 뜻이며 정숙한 여인이란 말이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놀 수도 있고 자유롭게 교제도 했을 텐데 -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개념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없다는 말과 비슷함

7. 만약 요나답이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충고를 했어야 하는가?

근친상간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니 마음을 바꾸도록 최선을 다해야

- 8. 다말이 이런 변을 당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좀 시켜야 하는 건데... 무슨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사건은 가까운 사람과 잘 아는 장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무리 가깝고 미더운 사람이 라도 남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단 둘이 있을 때를 피한다).
- 9.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증거가 있는가? 그렇다면 억지로 동침(강止)한 후에 어떻게 더 미위하게 됐을까?

상사병에 걸려서 나날이 파리해져 갔으니 사랑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남자의 사랑 고백은 진실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랑 없는 육체적인 욕망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기스스로도 이것이 쉽게 분간이 되지 않는다. 육체적인 욕망에서 생겨난 사랑일지라도 정신적인 단계까지 승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동침하고는 왜 미워지는가? 오직 육체적인 사랑만충족되고 나면 허탈감,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 등이 남는다. 서로가 동물임을 확인한 것처럼. 육체적인 사랑인지 정신적인(인격적인) 사랑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진정한 인격의 만남이 뒷받침된육체적 관계여야 아름다운 것이다. 진정한 사랑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에게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된다.

10. 이제 다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강제로 정조를 빼앗겼다는 것은 단순히 폭행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정조를 잃었으니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가정파괴범이란 말이 만들어진 것은 남자들의 잘못이다. 가쪽 앞에서의 폭력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 지켜내지 못한 가장의 책임이다. 목욕 한 번 하고 잊어버릴 일이다.

11. 다윗의 아들 암논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형이다. 그런데 왜 다른 집에 사는가?

엄마가 달라서

12. 20절에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는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쉽게 고쳐보자.

암논의 짓이냐?

- 13. 암논의 이런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레 20:17). 1)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2)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가? 3) 왜?
 - 1) 엄하게 다스려야 했다. 귀양을 보내든지, 왕자의 권한을 박탈하든지, 죽이든지
 - 2) 자식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못함(징계가 필요할 때 제대로 시행치 못함 김영삼 대통령의 둘째 현철이 대하듯)
 - 3) 엄하게 다스릴려니 자신의 잘못이 생각났을지도 모른다. 자신은 잘못했을지라도 아버지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 비록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14. 28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쉬운 말로 고치면? 내가 책임질게.

15. 압살롬이 처음에는 왕이 함께 가주기를 간청했다. 실제로 노리는 것은 암논이면서. 만약에 다윗이함께 갔더라면 사정이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그냥 생각해 보고 진짜 질문은 왕이 자기는 가기 어려우니 대신에 네 형 암논을 보내주마라고 했을 때 압살롬과 암논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압살롬: 노리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암논: 나는 왕의 대리인이다. 맏이로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흐뭇, 우쭐.

16. 다윗에게 전해진 소문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망 나온 사람이 전해준 기별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살인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도망친 사람이 그 다음 내용은 추측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17. 암논의 범죄와 압살롬의 범죄에 다윗도 책임이 있다. 밧세바 사건은 제외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둘 다 다윗이 도와주었다.(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것, 왕자들을 압살롬에게 보낸 것)
- 18. 압살롬이 왜 그술 왕 달매에게로 갔을까(망명)? 삼하 3:3

어머니의 나라, 외가집으로, 외할아버지에게로 피함

19. 다윗의 집안에 벌어진 다음 범죄가 누구의 어떤 범죄와 닮았는가?

암논의 추행: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압살롬의 살인: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함

- 20. 암논은 다윗의 맏이였다. 왕위계승자의 자리와 자신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었는가? 단 한 번의 성행위 (정욕에 이끌려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
- 21. 요나답이 간교한 증거는?
 - 1) 암논에게 나쁜 꾀를 가르쳐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면서: 왕위 계승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미리 잘 보여뒤야지.
 - 2) 나중에 다윗에게 지혜로운 신하인양 행세함
 - 3)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22.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한 인물평을 간단히 해보자.

암논: 정욕에 끌려 누이동생을 사랑함, 술에 취해 죽는 줄도 모름(주색에 빠져서 미련함)

다윗: 자녀문제만은 우유부단함, 노하고, 혼절하고, 통곡하되 아무런 징계를 가하지 아니함,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버림

다말: 비교적 순수하나 지혜가 부족함

압살롬: 복수의 화신(2년간, 내색조차 않음). 한다면 함

요나답: 머리는 돌아가는데 멀리 보지 못함(일을 저질러 놓고 안 그런 척)

길에 있을 때 = 도망오고 있는 중에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 소문이 사람보다 빨리 올 수 없으므로 누군가가 급히 소식을 전했다는 말일 것이다.

무릅쓰다: 어려운 일을 견디어내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쓰다.

사무엘하 14 장

- 1. 출세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윗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서 하지 말라는 일도 잘못되면 자신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쓸 작정을 하고 과감히 하는 것이다. 요압이 다윗의 속마음을 알아내고 일을 저질렀다.
- 1) 무슨 속셈이나 계산이 있었을까?

다윗의 환심을 사는 것, 훗날에 대한 대비(다음 왕이 될 자에게)

2) 만약 진정한 충성심의 발로라면 누구와 의논해야 했을까?

나단 선지자.

3) 다윗의 속내를 몇 번이나 읽었는가?

두 번: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13:39-14:1), 압살롬과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는 것 - 적당한 줄타기

2.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이용한 궁극적인 목적은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이 비유의 의도를 생각해 보고 다음 대화의 뒷부분을 완성해 보자. "압살롬을 데려 옵시다.", "형을 그것도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죽인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죽인 죄도 이런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용서할 수 있다.

- 3. 드고아 여인의 비유에 의하면
- 1) 형을 죽인 동생을 살려두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살인죄를 덮어두는 꼴이다.

2) 형을 죽인 동생을 죽이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자(후사)가 없어진다.

3) 결국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동생은 죽어 마땅하지만 이 여인을 위해서는 살려주어야 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하려면 동생을 살려두는 것이다.)

4. 이 여인도 대단한 여인이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어느 말에 목숨이 걸려 있는가?

13절 - 어찌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시나이까? 나의 작은 아들을 살려주시려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용서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용서해주길 바라는데) 이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용서하지 않으십니까?)

5. 이 여인의 논리에 따르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쏟아진 물 같은 우리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니

6. "아버지 계시냐?", "안 계신다고 하시래요." 누군가 시킨 일을 할 때에 시킨 것이 아님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표를 내는 수가 많다. 이 여인도 그런 표시를 내버렸다. 어디? 혹은 무슨?

스스로 말하기를(x2: 15,17) - 이런 일을 자기 스스로 계획한 것처럼 강조한 것과 아첨의 말(15-17)

7. 나단의 비유와 여인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자.

	나단의 비유	여인의 비유	
거짓의 유무	없음	참 과부, 숯불이 꺼짐, 변장	
출처	하나님	요압	
아첨의 말	없음	많음	
호소의 대상	다웟의 양심	다윗의 감정 (이성적 판단)	
동기	다윗의 회개를 요구함 요압의 정치적 목적?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	압살롬의 귀환 - 반란의 터전	

8. 나단의 비유는 다윗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었지만 이 여인의 비유는 다윗의 어디를 건드리는 비유 인가?

감정(혹은 부정): 논리를 논리로 싸우려면 대단히 어렵지만 논리를 정으로 이기고 아주 쉽다. 부부싸움이나 첨예한 의견대립을 덮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논쟁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꼭 알고 싶으면 설명을 할 테니 들을래? 감정(父情)을 자극한다.

9. 사람의 감정을 전드리려면 우선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게 하고 다음으로 상대방을 어떻게든 높여야한다. 이 여인이 이 두 가지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가?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도록: 동정심을 유발시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참 과부(도저히 괄세할 수 없는 사람은 과부와 고아), 머지려는 숯불.

상대방을 높임: 각종 아첨,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과 약을 분간하심(17),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

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19c),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20).

10. 드고아 여인의 비유는 압살롬을 변호하기 위한 이야기이지만 이 비유가 압살롬을 용서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 여인의 작은 아들과 압살롬의 살인에서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면? 그렇게 부적절함에도 이 비유가 성공한 이유는?

과실치사와 고의,

여인에게는 남은 아들이 하나뿐이지만 다윗에게는 다른 아들이 많이 있다.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父情)에 호소하여 올바른 판단을 그르침,

다윗의 마음이 자식에 대한 연민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다윗이 이 여인에게 약속한 것이 섣부른 것이었다는 증거는?

한 편의 말(과부)만 듣고 맹세를 한 점(드고아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아야)

12. 앞장에서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는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쉽게 고치면 '암논의 짓이냐?'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 '요압이 시킨 짓이냐?'를 성명식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19)

13.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속마음을 눈치 챘을 때 윗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삼국지의 조조는 싸울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고민을 계록이라고 했다가 속마음을 들킨후 그 마음을 알아차린 신하를 결국은 죽이고 만다. 다윗은 이때 요압에게 전혀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을 것이다. 윗사람의 속마음을 너무 잘 읽는 것도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 정치판에서는.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토사구팽 당하는 위험한 짓이다. 적절하게 숨길 줄도 알아야 한다. 인간이 그렇게 속 넓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14. 압살롬의 준수함은 인간적 기준으로 보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했다고 한다. 왜 여기에 특히 머리카락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까?

그 아름다움이 결국 자신의 죽음을 초래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18:9):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자신에게 독약이 되는 일은 아주 흔하다. 예쁜 여자는 술집에 많다는 사실은 미모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사람이 많음을 보여준다. 마음을 다스려야지

15. 아들 셋에 딸이 하나인데 왜 아들의 이름은 없고 딸의 이름만 나와 있을까?

아들은 전부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18:18: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였다고 함

16.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려면 직접 찾아가면 될 텐데 왜 가지 않았을까?

아마 연금상태에 있었을 것: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24), 다윗과 해후한 후에 자유롭게 동조자를 포섭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럴 것 같음

17. 압살롬이 전혀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있는 증거는?

요압의 밭에 불을 놓은 점(30) - 여전히 강성이다.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을 것(32)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가하니라(32)

18. 우리나라에 많은 작명가가 성경을 보았더라면 다말이라는 이름이 안 좋은 것으로 판정을 했을 것이다.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이지만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는가?

유다의 아들을 낳은 며느리, 야곱의 딸, 다윗의 딸

19.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데에 자신의 변화는 전혀 없다. 단지 다윗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왜 반성하거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 당연히 죽을 놈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20.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허락했음에도 다시 반발하는 주원인은 무엇일까?

아들과 다시 화해하는 장면이 전부 피동적이다. 확신이 있으면 용서하든지 죄가 있으면 명백하게 벌을 주든지 해야지 죄는 있고 용서는 하고 싶고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가 의지가 센 사람이 이기는 식이면 결국은 버릇없는 아이를 만들고 만다. 용서하려면 확실하게 용서를 해야지,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용서한다고 해 놓고도 툭하면 또 끄집어내는 것은 자식을 더 나쁘게 만든다.

22. 세 사람을 정리해 보자.

다윗: 적어도 자식문제 만큼은 우유부단함, 자식 앞에 약한 아버지. 이 여인의 비유가 그리 적절하지 못함에도 다윗은 그 비유를 받아들여서 억지로 부탁을 들어준다. 못 이긴 척, 법과 규정을 은근슬쩍 무시하면서 거절하는 척 하면서 받아들임

압살롬: 박력, 용모 뛰어남,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패망으로 이끔

사무엘하 성경공부 ----- 14:1~33

요압: 처세술이 아주 뛰어난 줄타기 외교의 명수

상제(**喪主 喪制**): **喪** 중에 있는 사람 사자(嗣子): 후사, 대를 있는 아들

사무엘하 15 장

1. 전배(前陪)란 벼슬아치의 행사 때 앞을 인도하는 하인, 호위병을 가리한다. 그러나 성명에는 어느 왕도 이런 식의 호화롭고 권위주의적인 행차를 찾아보기 어렵다. 어긋난 송아지 엉덩이 뿔나고 인간 덜된(종가에서 먼)게 항렬만 높다? 총각 못된 것이 뒷머리 벗겨진다던데 압살롬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

아마 압살롬이 외가에 망명을 가 있을 동안에 이방의 권위주의적인(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것만 배운 모양이다. 인간 덜된(종가에서 먼) 게 항렬만 높다? 총각 못된 것이 뒷머리 벗겨진다. 처녀 못된 게 오늘 낮에 들었는데...

2. 압살롬이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둔 것에 대하여 1)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잘못이 있고, 비슷하지만 2)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한다는 신명기의 가르침과는 어떻게 다른가?

병거와 말을 준비함: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야 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평화의 왕이란 뜻이다.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신17:16):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다.

3.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남에게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면 안 된다. 오히려 없어도 있는 것처럼 빚을 내서라도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한다. 그래야 남의 돈을 쓸 수 있단다. 압살롬이 전배를 세운 것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것 외에 민심을 얻기 위하여 압살롬이 한 일을 요약해보자.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재판도 하기 전에 유리한 말로 부추김)

왕이 송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 (모함)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먼저 관심을 보임)

내가 재판을 한다면 잘 할 텐데

절하려는 사람에게 대단한 친근감, 겸손함을 표함 (가장된 겸손)

4. 전배 50명을 세위 자신을 과시하는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친근한 모습은 일관성이 있는 것 인가 없는 것인가?

일관성이 없다: 한편으로는 과시하며 또 한편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 것

일관성이 있다: 마음을 훔치기 위한 거짓행위이기 때문이다. 왕에 대한 반역이라는 점에서 보면 일관성이 있다. (더 옳은 답)

5. 압살록이 반역적인 행위를 시작한지 4년이 되도록 다윗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압살롬의 행차를 장난으로 보았거나,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만 훔쳤지 실제로 다른 표는 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자식의 일은 다 이뻐 보이기도 한다. 고슴도치 이야기, 그러나 근본원인은 나단의 예언에 있다.

6. 백성들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일까?

자신의 뚜렷한 소신이 없으면 쉽게 대세나 군중심리를 따르게 마련이다. 말없는 다수. 겉모습을 따르기 쉬운 경향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던 사무엘에게서도 볼 수 있었다.

7.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기가 쉽단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 하면 그저 반가위서 쉽게 넘어 간단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는 것도 안 되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속아도 안 된다. 다윗이 압살롬의 말을 듣고 '평안히 가라'고 허락할 때 기분이 어떠했을까?

하나님께 서윈한 것을 갚는다니 신앙이 참 좋아졌구나.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어떤 신앙인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교회만 다니면 OK? 이권 곤란하다.

8. 백전 노장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허약해졌을까?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보고 한 마디에 싸위 볼 생각도 않고 도망가다니?

나단의 예언을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는 것이라면 버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9. 다윗의 신앙은 어떻게 정리해야 좋을지 난감하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의 모습은 너무나 장한 모습이어서 많은 사람의 기를 꺾을 정도였고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빠져 나올 때도 보통 사람 이 실행할 수 없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우리아의 아내를 훔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보면 도대체 신앙인이라고 해야 할지 의심스럽다. 아들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니 바보스럽다. 다윗이 위대해 보일 때와 바보 같아 보일 때를 분간해 보자.

위대할 때: 1) 다윗이 다윗다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을 때이다. 2) 전쟁에 임했을 때 - 압 살롬의 소식을 듣자 취한 행동은 아주 빠르다. 신속한 후퇴, 하나님께 의지, 스파이 파면 바보 같을 때: 여자문제 자식문제가 걸리면 도무지 다윗답지가 않다.

우리의 모습도 어떨 때 위대하고 어떨 때 보잘 것 없는가? 어디서 기가 살아나는가? 오락? 고스톰? 그러다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10. 그러나 피난길을 따라나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갔다 놓으라는 말 속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된다. 1) 피난 가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 2) 무슨 의도로 이런 궤를 도로 원위치에 두라고 하는가?

이점: 적어도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왕이 승하하게 되면 우선 급히 챙기는 것이 옥쇄다. 이스라엘에서는 옥쇄보다 더 의미가 있다. 삼상 앞부분에서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전장에 메고 갔던 일도 있다. 전쟁에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의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의미 (자신의 원수를 자신이 갚으려 하지 않았던 일과 통한다)

11. 8장에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등장한 일이 있다. 아마 직할대 대장, 요즈음 식으로 하면 수도방 위사령부나 대통령경호실쯤 될 것이다. 이들과 함께 다윗을 따른 가드에서 온 600인이란 어떤 사람들인 가?

다윗이 망명해 있을 때 고락을 함께 한 사람들

12.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엄청난 시련을 이겨내고 이제 왕이 되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복을 누리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모습은 그 동안에 받은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느낌이 든다.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인간사 **塞翁之馬**라고 할 것이다. 다윗의 이런 변화를 새옹지 마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

새용지마라는 말 속에는 상황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대해서 그 노인이 기여한 바가 없으나 다윗의 경우는 이런 변화의 원인이 다윗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반역의 근본 원인도 다윗에게 있고 회복되는 것도 상당 부분이 다윗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궁극적인 배경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13. 성 안에 남겨둔 스파이는 누구이며 그를 돕는 사람들은?

후새, 사독과 아비아탈, 그 아들들(아히마아스, 요나단)

14. 다음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라고 했거나 혹은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중에 자신이 도움을 바란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위해서 그렇게 명한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 후새, 잇대, 후궁 열 명

사독과 아비아달: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며 성내 사정을 보고해 주기 바람. (신 앙적인가 모략적인가?)

후새: 자네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저지해 주기 바라네

후궁 열 명: 설마 후궁까지 죽이겠나? 그냥 궁을 지켜라

잇대: 망명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외국인이므로 내란에 말려들 필요 없으니

(아무 임무도 없음)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의지하러 온 이방인을 이렇게 생각해 줄 여유가 놀랍다. 결과적으로 잇대는 나중에 다윗의 충실한 신하가 되어 압살롬을 진압하게 된다(18장). 다윗은 이런 인격적 감화를 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15. 다윗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나타나는 구절은?

26: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원조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아니라 다윗이다.

16. 쫓기는 다윗에게 가장 위협적인 소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모사 아히도벨이 배신한 것 - 하나님께 기도함 - 후새 등장(나중에 해결사가 됨): 다급한 때는 기도를 빨리 들어주심

17. 엘리 제사장 시절에 불리한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전쟁터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한 적이 있었다. 그일이 실패로 끝난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 아닐까?

제사장들을 스파이로 이용하기 위함이다.(어느 정도는 그럴 생각도 있었을 것이지만 결코 이 생각이 먼저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부수적으로 제사 장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기도 했을 것)

우리는 100% 순수하기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작은 열심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전배(前陪): 벼슬아치의 행차 때 앞을 인도하는 하인, 호위병

사기(事機): 일이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틀,

사기를 알지 못하고 =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유리(流離): 방황,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돎

사무엘하 16 장

1. 시므이는 마중을 나왔을까? 따라왔을까?

예루살렘에서 반역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 따라왔다(3). 그래서 다윗이 더 고맙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므비보셋이 변명을 하는 말과 일치한다. 안장을 지우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절뚝발이인 자기를 속였다는 것이다.

2. 이렇게 어려운 때에 베푸는 호의는 더욱 고마윘을 것이다.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은 이유는?

아마도 다윗은 이 일을 시킨 사람이 므비보셋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3. 시므이의 거짓 대답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정천벽력: 분노, 허탈. 은혜를 베푼 것이 가슴이 쓰렸을 것. 믿었던 도미에 발등 찍힌 격이라고 할까?

4. 시편에 그렇게 많은 글을 남긴 다윗이라면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데 시므이의 말을 듣고는 왜 이렇게 경솔할까?

므비보셋과 함께 지냈으니 어떤 사람인지 알만도 한데 바보같이 속은 것은 분명히 경솔했다. 뇌물에 약한 게 인간인가? 다급하면 판단도 흐려진다?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판에 누굴 믿겠는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사람이 변하는 예는 많다. 우리 아버지, 술꾼들, 결혼? 화장실...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지 확인도 해야죠.

5. 시바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절름발이 주인 므비보셋을 대신하여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잘 살았다. 다 윗이 왕이 되어 므비보셋을 찾은 이후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가 버린 것이 몹시 원통했을 것이다. 그 렇다면 이럴 때 다윗의 편에 서기보다는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할 텐데 왜 다윗에게 양식을 제공 하면서 므비보셋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압살롬의 반란이 결국 실패할 것임을 예면하고 있었다? 처신이 그리 현명하지 못한 것 같다. 다윗이 영 영 쫓겨가 버려도, 다시 돌아와서 므비보셋을 만나면 자신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데...

- 6.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시므이는 신이 났다. 그러나 시므이의 생각이 사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
 - 1) 다윗이 사울 쪽속의 피를 흘린 적이 없다.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이 두 번, 요나단과는 형제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누었다)
 - 2) 다윗의 이런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지 사울 쪽속의 피를 흘린 탓이 아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윗은 실상 아무 관련이 없으나 시므이가 나름대로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3:27, 4:6)
- 7. 시므이가 욕을 몇 가지나 했는가? 그 중에서 어느 욕이 가장 심한 욕일까?

피 홀린 자: 살인자

비루한 자: 벨리알의 사람아(직역) 무익한 자. 깡패 고후 6:15 사단

가거라 가거라(약속의 땅에서): God damn, 내 백성이 아니다.

돌을 던지는 것: 죽어라 이 놈아(우리나라 사람이 돌을 던지면 아프지 이 놈아)

- 8.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시므이를 탓하지 말라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 그 중에 가장 본 받을 만한 것 하나만 고르시오.
 - 1)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시므이는 어떤 계시를 받아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다. 자기 분에 못이겨 이럴 뿐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 2)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이러한데 하물며 사울의 집안이지 않느냐? /한강에서 뺨을 맞으면 종로에서 분 풀이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 3)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으실 줄 아느냐? (시므이의 저주가 실제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참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이 있을 때 실천해 보자)
- 9.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즉 이 일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내 개인적인 일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전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아비새와 비교해서 다윗의 위대함을 설명해 보자)

나타난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아비새가 다윗의 말을 대신했다면 이건 어쩌면 반역죄가 될지도 모른다.

10. 시므이에게는 감쪽 같이 속았는데 시바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어떤가?

시바의 말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시바가 보기에는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생각이 들만큼 스스로 속아주는 것 같음 - 시바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함. 수많은 바보짓 속에서라도 이것 하나면 최후 승리는 보장되는 것이다.

11. 본문에서 가장 억울한 짐승은? 개는 참으로 억울하다. 툭하면 사람들이 욕할 때 왜 개를 들먹이는

77?

개는 어미와 교미하기도 하는 특이한 동물, 그래서 경멸의 대상으로 언급됨,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서도

12. 16장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가?

후새: 거짓으로 압살롬의 참모 노릇을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도 전혀 책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성명에 더러 있다. 말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제고해 보자.

13. 압살롬의 반역은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후새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성공했다는 자만심, 후새의 아첨에 들떴을 것 (왕이여 만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택한 자-브루터스, 당신은 정통성을 이어 받은 왕이니이다.)

14.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은 당시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왕위를 찬탈한 왕은 전왕이 가졌던 모든 것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왕비나 후궁을 겁탈했다고 한다. 어쩌면 아히도벨이 노린 것도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관계를 완전히 끊어서(21절) 혹시라도 화해해서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해지는 후환을 깨끗이 없애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몰랐지만 이런 사실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언제?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나단의 책망 속에

15.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한 장소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지붕이었다. 이 장소는 과거의 어떤 장소였다고 할 수 있을까?

다윗이 몰래 밧세바를 훔쳐보았던 곳 (몰래 저지른 죄악이 어떻게 변해서 나타나는가?)

16.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가부를 알 수 있었다.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23)는 표현에서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이란 바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 물어보나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나 답이 같다는 말인가?

그의 모략은 다웟에게나 압살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만큼 신임이(전위가) 있었다는 뜻.

비루(鄙陋): 성질이 폭력적이고 사악한 자

사무엘하 17 장

1.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에게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무슨 사무치는 원한이 맺혔기에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까?

다음 구절을 참고해서 가능한 추측을 해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환멸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11:3(밧세바는 엘리암의 딸), 23:34(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탓인데 아히도벨이 그 형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 우리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2. 뜻을 잘 모르는 말이 있으면 문맥을 먼저 살피고 다시 보면 알 수 있는 법이다. 아히도벨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렇다면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는 말에서 왕의 찾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아히도벨의 의도는 겁만 주어도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다윗만 홀로 남게 된다. 그러면 다윗만 죽이면 다른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다.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다.

3.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누구의 마음이 녹는다는 말인가? (저상/沮喪)하다: 녹다, 완전히 낙담하다. 기운을 잃다.)

압살롬의 군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4. 아히도벨의 작전은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작전인지도 모른다. 비록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이 잘못이라 해도 그는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다. 그의 작전 중에서 어떤 점을 칭찬하고 싶은가?

백성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다윗만 죽이자는 점 후새의 작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5. 기동 타격대를 보내자는 아히도벨의 속전속결 작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후새가 지적하는 점은?
 - 1) 새끼를 빼앗긴 꿈(잘못 건드리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2) 병법에 밝아 그 정도는 미리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따로 숨어있을 것이다)
 - 3) 혹시 몇 명이 죽어서 사기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많다.
- 6. 불에 덴 적이 있는 사람은 불을 몹시 겁낸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도 같은 말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가?

후새의 말 중에 10절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앎이니이다'

- 7.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후세는 지공(遲攻)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다. 아히도벸의 속전속결 작전에 반대하는 지공작전의 요점을 정리해 보자.
 - 1) 대군을 모으고
 - 2)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는
- 8. 아히도벨의 지략은 치밀하고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후새마저도 그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하여 반대 의면을 내놓고 해도 그의 지략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 그의 지략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자살로 끝을 맺은 것은 그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다윗의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코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9. 후새의 작전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허풍, 겉만 번드르르함, 어떻게 줄을 가져다가 성 하나를 통째로 강에 빠뜨린단 말인가? 겉만 보고 따라가지 말자. 허풍 그만 치고 속을 좀 들여다 보자.

10. 압살롬이 후새의 어느 말에 솔깃했을까?

기습해서 백성들은 흩어버리고 다윗만 죽이는 작전보다, 땅에 이슬이 내림같이 덮어가는 모습, 이런 대 군을 직접 통솔하는 장면, 반역자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 힘 있는 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있는 힘을 쓰고 싶어 하는 못된 버릇, 르호보암이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직전 차지철 경호실장 이란 자가 그랬다.(까짓 거 한 200만 명 정도는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11.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후새의 작전을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음(14)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한 것인가?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했을 뿐이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자기들 눈에 선한 대로 움직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뒤에 있었다는 말씀이다. 매사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동 기와 윈인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12. 후새의 계책이 받아들여졌으니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후새는 급하게 도망가라고 전달을 보낸다. 15절 후새의 말을 16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간단하게 바꾸면?

급한 불은 꺼놨지만 혹 알 수 없으니

13. 후새의 전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가?

후새 사독과 아비아달 어떤 계집 종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다윗

13. 제사장이 이런 스파이 짓을 해도 되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14. 에느로겔 가에 머무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왜 하필이면 계집종이 심부름을 갔을까?

물 길러 가는 척하고 가기 쉬우니: 에느로겔은 로겔 샘이라고 번역이 가능하다.

15. 아히도벨은 나름대로 뜻하는 바가 있어서 다윗을 배반하기로 했던 것 같으나 자신의 계책이 거부되자 자살한 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알아보았던 모양이다.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어서 압살롬의 편에 섰는지도 모른다. 다윗을 징벌하려는 그의 생각은 옳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의 계책이 실패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스스로 자기가 단죄를 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사울을 자기 스스로 죽이려 하지 않았던 다윗과 비교해 보면 자명하다.

16. 마하나임 성은 한 때 이스보셋이 임시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 그만큼 튼튼한 성이었다. 이리로 피한 다윗에게 누가 도움을 주었는가? (왜 그랬을까?)

암몬 쪽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암몬의 전왕 나하스는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그 아들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했다가 정벌 당하고 말았다. 그 하눈의 동생이다. 정벌된 후에 다윗에 의해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았을 것, 랍바성 - 우리아가 죽은 곳

로데(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므비보셋을 보호한 사람(9장), 다윗이 므비보셋을 대우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래: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아람 사람들의 침략이 잦았던 지역이다. 이곳의 부자들은 다윗의 강력한 통치력이 고마울 수밖에 없다.

이들은 알게 모르게 다윗의 도움을 받거나 그의 인격에 감격했던 사람들일 것, 평소에 잘해 놓으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법이다.

- 17.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을 찾아보자.
 - 1) 압살롬이 후새를 부른 것,
 - 2) 압살롬이 후새의 작전을 수용한 것,
 - 3) 바후림의 한 여인이 도와준 것 =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잡히지 않고 다윗에게 이른 것,
 - 4)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무사히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른 것,
 - 5) 뜻밖의 조력자들이 나타난 것,
- 18. 위의 문제를 참고로 해서 다음 설명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위급한 때에 다윗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후새를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적절하게 다윗을 도와주었다. 다윗은 참으로 행운아였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신 것이지 행운아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다.

사무엘하 18 장

1.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의 대화(1-4)를 보면 다윗보다 그의 백성들이 더 위대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바람직한 지도자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_____를 (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의 백성들로부터 ______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솔선수범하는 자세, 진정한 존경, 자발적인 헌신,

2.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인 것과 또 적은 숫자로 인해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을 깨닫고 몸소 전투에 참가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왕을 소중하게 여기면 백성들의 만류에 물러서고 만다.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지도자가 이렇게 의지가 약해도 되나?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그래서 양보할 때 양보할 줄도 아는 아량 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

- 3. 압살롬을 파하기 위한 이 싸움에 대하여
- 1) 이 싸움의 주체를 다윗과 압살롬이라고 하지 않는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백성과 이스라엘(6)

2) 무엇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

군사의 숫자상 차이(전체와 일부, 17:24)

3) 그럼에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만 말한다면 어떤 요인이 있는가?

유능한 신복들(7), 충성스런 백성들(3), 적지만 체계화된 조직 (1-2): 숫자는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았겠지만 충성보다는 엉겁결에 소집되어 따라 나온 군사들이었을 것이다. 제대로 싸우려는 의사도 없었을 것.

4. 압살롬이 망명을 간 지 3년 만에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2년 동안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던 다윗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나, 또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고 난 후에 슬퍼하는 모습은 공과 사를 분간하지 못하는 부성의 극치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단순한 부성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일 것.

- 5. 이 전투를 보면서 후새의 작전이 압살롬에게는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란 점을 설명해 보자. 아이들 싸움은 누가 먼저 코피가 나느냐로 결판이 난다. 옛날의 전투는 적장만 죽이면 끝이 난다. 앞장 서서 대군을 지휘하라는 것이 신이 날 것 같지만 죽을 확률이 높고 반면에 다윗은 전투에 나서지도 않 았다.
- 6.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윗의 출전을 막으면서 하는 말은 곧 누구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말이 되는가?

압살롬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말, 백성들도 아는 일을 지휘자가 모르다니. 그 정도야 알겠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만심이 문제일지도.

7.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성명을 읽다가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린 것을 보고는 책상을 두드리며 웃고 있었다. 이솝의 우화에도 사슴이 자기의 뿔을 자랑하다가 결국 그 뿔 때문에 죽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뿔은 무엇인가(2가지)?

머리털(힘과 아름다움)과 노새(신분의 상징) - 악인의 자랑거리일 뿐

8. 요압이 비록 뛰어난 장군이었을지라도 평판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말이 그것을 보여주는가?

상을 주었으리라는 말에 대한 답 - 실상은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9. 우리아를 죽이라는 불의한 명령에 기뻐이 순종했던 요압이 다윗의 간절한 부탁에도 압살롬을 죽여 버렸다.

아브넬을 멋대로 죽였던 일까지 감안해 보면 안하무인격으로 설쳤음을 알 수 있다.

- 10. (O, X문제) 그 날 그 전투에서 죽은 자가 최소한 4만 명이었을 것이다.
 - 0, 수풀에서 죽은 자 = 비탈이나 협곡, 늪이 많아 도망치다가 떨어져 죽은 경우 등을 말한다.
- 11. 압살롬이 생전에 비석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 어떤 의도로 만들어 두었을까?

설마 자신이 일찍 죽을 것을 예감하고 만들어 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들들이 일찍 죽고 자신의 명예로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것, 아마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세웠을 것 - 결국은 가장 패역한 아들이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널리 전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12. 압살롬과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외에 하나만 더 붙인다면? (압살롬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 1) 전쟁에 나갈 때에는 머리를 꼭 묶고 나간다.
- 2) 수풀에서 노새를 타지 않는다.
- 3) 자기가 대장이라고 전쟁놀이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 4) 아버지에게 대들지 않는다.
- 5)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압살롬의 최후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죽음을 당하게 됨, 참혹하게 죽음, 영원히 치욕을 남김(돌무더기)

14.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참고로 우리나라의 성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상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탈팽이 모양으로 두 개의 성문을 그린다. 혹은 외부 문과 내부의 문으로 이중/파수꾼의 성 문루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 에틴버러 성)

15. 아히마아스는 평소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이었다(27). 그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요압이 말리는데도 한사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결과는?

- 1) 여호와메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
- 2) 압살롬의 죽음
- 3) 근심 가운데 있을 왕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 공을 세우려는 야망? 평소에 그가 왕에게 충성한 일 물을 참고해서 아닐 것
- 4) 다윗은 승리의 소식보다 자식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있었음으로 실망하였을 것, 다소 당황스러웠을 것
- 16. 이 장에서 주인공은 누구라고 할까?

이 18장은 무명용사의 장이다. 이름 없이 충성한 백성들의 공이다.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지만 진정으로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름 없이 공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충성하는 이런 백성들 덕분에 다윗이 성공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무엘하 19 장

1.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모두가 안도하거나 기뻐하고 있는데 다윗만 슬프다. 망명지에서 돌아왔을 때는 2년 동안이나 아들을 만나주지도 않았던 그가 지금은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왜 그럴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압살롬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우리아의 아내로 인한): 나쁜 자식이라고 욕을 할 대상이 있으면 가슴이 덜 아플 텐데, 다말, 암논도 생각이 났을 것, 잠시 눈을 즐겼던 것이 이렇게 아플 줄이야.

2. 지도자가 사적인 감정(아픔)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요압 같은 신하가 공갈을 치게 되고 얕잡아 보게 된다. 요압이 다윗에게 공갈을 친 내용은? 그 중에서도 다윗이 듣기에 가장 끔찍한 말은?

빨리 신하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오늘 밤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압살롬 대신 우리 모두 죽었더라면 좋았겠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공적인 일에 사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로울 것은 없다. 가령,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없다면 아래 사람을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지만 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지도자로서는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

3. 수적으로 절대 열세임에도 압살롬의 군대와 싸위서 이긜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의 충성심이 훨씬 강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마지못해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 정으로 존경하면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왕의 슬픔을 함께 하는 착한 백성들(전장에서 승리한 기쁨을 덮어두고 가만히 들어옴) - 왕과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된 모습

4. 압살롬을 따랐던 백성들이 잠시 귀신에게 홀렸던 모양이다. 겉으로 드러난 허세나 의도적인 자비에 마음을 빼앗겼다가 다시 무엇을 생각하며 다윗에게로 마음이 돌아오는가?

과거 다윗의 업적들: 모든 원수들과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하여 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나,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잊지 말라는 것이나

5. 압살롬은 다윗과 달리 그렇게 죽을 운명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서 찾아보자.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과 싸움이 되는가?

6.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옴으로 다윗은 더 이상의 어려움 없이 왕의 자리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도중에 마음이 가장 늦게 돌아선 지파는 어느 지파이며 왜 이들은 다윗을 도로 불러들이는 일에 머뭇거리고 있는가?

유다 지파, 반역의 주체들이었으니

7. 유다 지파마저 마음을 돌렸으면 민심은 다윗에게로 다 돌아온 셈이다. 마지막 남은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며 어떻게 제거했는가?

반역 군대의 군장 아마사.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이 되리라: 정상적으로는 처형 대상인데 반란을 평정한 장군인 요압 대신에 적장을 군장으로 삼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다. 아마 다윗에게는 요압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자신의 뜻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요압 몰래 술수를 쓴 것인가? 결국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만다. 자신의 좌천을 미리 알아채고 상관을 체포해버린 어느 장군보다는 그래도 요압이 착하다.

8. 12절의 '넉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어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이 말의 숨은 뜻은? 즉 이 말은 유다 쪽속의 허를 찌르는 말이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말은 무슨 말이었기에 이 말을 듣고 유다 쪽속이 다윗을 맞으러 바로 나올 수 있었는가?

반역자들 내가 가만 두나 봐라라고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형제요 골육인 점만 기억하고 있다.

9. 시바의 잘못에 대하여 다윗이 별로 말이 없다. 므비보셋의 해명을 듣고는 시바의 모든 것을 압수하고 처형을 하는 것이 옳을 텐데 왜 그럴까?

시바가 왕을 속인 죄도 크지만 어려울 때 도와준 것과 자신의 경솔함 때문이었을 것 (모든 백성을 새롭게 하나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웬만한 것은 용서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 같다 - 유화정책)

10.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는 모습은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과 나름대로 원통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무슨 근거가 있는가?

베냐민 지파에서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11.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는 행위는 어떨 때의 행위이며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경우에 어느 정도로 위험한 행위일까?

반역적인 행위이다.

12. 므비보셋의 변명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약간 이상하다. 언제 자신의 일을 이야기했길래 다윗이 '또네 일을 말하느냐'고 힐난하는지 생각해 보고 여기 네 일이란 무엇일까? 아마 므비보셋이 종종했던 말일 텐데.

자신의 과거와 현재 형편에 대하여 감사한 일.(28절)

13.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를 힘으로 억누르면서 하는 말의 요점은 무엇이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 공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더 가깝기 때문이다.
- 2) 아부를 통해서 실점을 만회하려고
- 14.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유다 사람들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맞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틀린다면 왜?

옳은 말이라고 아무 때나 함부로 마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바보를 보고는 절대로 '넌 바보다' 고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15. 유다 지파의 잘못을 또 지적한다면?

다윗의 환궁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이 협의 중인데 가로채서 저희들이 앞장을 서 버린 모양이다.

16.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우리는 십분/十分)을 가졌으니'만 말의 의미는?

유다 지파를 상대로 싸우는 중이지만 베냐민 지파도 제외시킨 모양이다.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마중을 나갔으니 유다 지파와 같이 취급했을 수도 있다. 나중에 나라가 갈라질 때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대가 된다.

17. 환궁 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다소 처신을 잘못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 자식이든, 학생이든 편애하는 것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우대하면 안 된다. 그런점에서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마사에 대한 대우: 7번 참고

유다 지파에 대한 지나친 유화적인 태도: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대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순해 보이는 주도권 다툼이 다음 장에 보면 세바의 난으로 나타난다. 더 나중에는 나라가 분열된다.

18. 한궁하는 다윗을 맞으러 온 사람들 중에 가장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유다 쪽 속, 시므이, 시바, 므비보셋, 바실래,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족속 (반역의 주체, 다윗의 환궁에 대해서 가장 망설이고 있다가 용서하겠다는 말을 듣고 다른 지파를 제쳐두고 뛰어옴)

시므이: 정신이 말짱하네.

19.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

시므이, 시바, 아마사, 유다 장로들

20.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눅 7:42 참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용서받은 자가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유다 쪽속, 시므이, 시바가 하는 행위를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어떠한?

정반대의 행위이다: 죄 지은 자가 용서받기 위하여 더 열심히 사랑하는 척 하는 것

21. 이번 반란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명백한 잘못이 있어도 처벌할 생각을 다윗이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

이런 비극의 원인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모든 백성을 새롭게 하나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웬만한 것은 용서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 같다 - 유화정책

22.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가장 사심 없는 사람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 가?

김함을 천거하지 않았으면 바르실래일 텐데, 없었던 것은 므비보셋

- 23.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보자.
 - 1) 다윗이 왕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민심을 수습하는 모습: 유다 지파, 시므이, 아마사, 시바를 용서한 것,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은 것(=민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 2) 개인적인 감정을 감추지 못하여 실수라고 할 만한 것들: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 슬퍼한 것, 유다 지파를 너무 의식한 것, 적장 아마사를 등용하겠다고 함(=요압을 미위한 것), 므비보셋의 변명을 듣고도 공정한 판정을 내리지 않은 것
 - 결)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었지만 실수도 많았음을 알자. 실수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사무엘하 성경공부 ----- 19:1~43

잡혀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요단을 밟고 건너(17): 급하게 뛰어 건너 호행(**扈行**): 뒤따를 호(주로 임금에게 사용된 단어 같음), 모시고 따름 성문에 앉다: 집회, 재판,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던 곳

사무엘하 20 장

1.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하여 갈 때에도 시바나 시므이가 나서서 속을 뒤집어 놓더니 또 베냐민 지파 가 말썽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왜 이러는가?

자신들이 왕쪽이었는데 다윗 때문에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왕조가 바뀌면 이래서 전왕의 뿌리는 싹을 잘라버리는가보다. (사실은 사울의 부족함 때문이지 다윗은 아무 죄도 없다)

야곱의 예언: 창 49:27, 물어뜯는 이리, 한 때는 전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기도 했음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호전적이었음,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하는 데는 이런 성격이 유리함,

2. 세바의 삶은 비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더욱 희극적이다. 자기들이 세웠던 다윗을 배반했다가 압살롬이 죽자 다시 다윗에게로 향했던 마음이 일순간에 다시 세바에게로 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변고인가?

이런 것을 군중심리하고 하는가? 대중의 인기란 것이 이런가?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던 무리들이 곧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던 것도 같은 현상인가? 그러면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까? 흥분해서 날뛰던 무리 속에서 웃음으로 흥분을 가라앉혀 버린 이야기도 있다. 좌우간 일시적인 흥분에 휩쓸리지말아야 한다.

3. 예루살렘에 남아 있든 후궁 10명은 무슨 죄가 있나? 과거에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짐작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고된 일이기도 했는데)

자결로 끝났을 것, 다윗의 잘못이 많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도 없었을 것.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절충안이었을 것. 부인이 한 명이었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 부부사이라 기보다는 단순한 부속물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일 것. 레 18:6-8 (한 여자와 부자가 동침할 수 없다), 신 24:4 (다른 남자와 관계한 여자)

4. 동침 안 하는 일도 무슨 큰일인가?

성명은 큰일이라고 말한다. 출 21:10에 부인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사왔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평생 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 의복, 음식, 동침. 고전 7:1-6에서도 부부사이의 동침에 관한 교훈이 있다. 중요한 것이다.

- 5.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라는 것은 반란을 징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다윗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 1) 요압을 배제하려 함
 - 2) 아마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함 (아마사에게 앞으로 더욱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는 것)
- 6. 요압이 아마 엄청난 불만을 품었을 것이다. 어떤 불만이 있었을까?

군대 소집하는 일을 아마사에게 맡기다니, 이번 반란을 평정하는 일을 내 동생에게 맡겼다. 자신은 백 의종군이다. 공을 세울 기회가 없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면 군대장관의 지위도 위태로울 수 있다.

7. 전에 같으면 이런 일은 분명히 요압의 일인데 아마사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니 아비새에게 일을 맡겼다. 아무래도 다윗은 요압이 못마땅한 모양이다. 다윗이 무슨 일로 이렇게 삐진 것 같은가?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압살롬을 죽인 것, 왕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 8. 아비새의 군대는 구성이 좀 특이하다. 어떤 군사들로 구성되었는가?
 - 1) 요압을 좇는 자 요압의 친위대?
 - 2)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다윗의 근위부대
 - 3) 모든 용사들 일반 군사들은 그냥 백성인데 용사는 특별한 용어다. 예전부터 다윗에게 충성을 다 했던 군인들이다.

12절에는 모든 백성들이란 표현이 나온다. 위의 무리들 외에 아마사가 소집해온 군대를 가리키는 것 같다.

9. 수염을 잡는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사항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입을 맞추기 위한 예비 동작즉 친근함의 표시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압살롬이 손에 칼을 든 채 아마사에게 입을 맞추고 칼로 찌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속임수였다: 허리에 차는 칼을 손에 들고 있었다면 아마사가 아무리 부주의해도 몰랐을 리도 없고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 아마사 바로 앞에서 길에 떨어뜨린 칼은 속임수라는 말이다. 떨어진 칼을 주위든 석하고 손에 들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다른 작은 칼을 숨기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10. 패키지 판매라는 것이 있다. 여러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판매하는 방식인데 전집류를 낱권으로 팔지 않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불리한 방식인데 이런 원리가 본문에도 있다면?

11절,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다윗은 위하지만 요압을 좋아하지 않는

자는 어떡하라고?

11. 세바의 반란이 일어난 원인은 다윗의 유다 쪽속에 대한 ___때문이고, 아마사의 죽음은 일단 요압의 책임이지만 요압으로 하여금 그런 악한 마음을 같도록 원인 제공은 ___이 한 셈이다.

편애, 다윗: 온통 다윗이 말썽이네.

12. 벧마아가 아벨 성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던 납달리 지파의 최북단의 요새이다. 세바가 이곳까지 쫓겨갔다는 뜻이다. 요압이 벧마아가 아벨 성에 대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성읍을 쳐서 헐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유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멀쩡한 성읍을 파괴해 버릴 위험: 그 성읍의 거민들은 세바가 어떤 인물 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신 20:10에 보면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화해를 시도할 것을 명하고 있다.

- 13. 지혜로운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이 아벨 성은 어떤 성이기에 요압이 함부로 멸해서는 안 되는가?
 1) 지혜로운 자가 많다.
 - 2) 이스라엘의 어미같은 성이다.
 - 3) 여호와의 기업이다.
- 14.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니라 하고 그 일을 끝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애들이 싸우다가 엄마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일이 끝난다. - 그만한 지혜가 있는 성이란 뜻. 사람들이 싸우다가 잘 모르면 방송국에 전화를 한단다. 가끔은 학교에도 그런 전화가 오는데... 사전을 찾아 봐야지.

- 15. 엄청난 숫자의 요압 군대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을 이 여인은 혼자서 금방 해냈다. 이 여인을 칭찬해 보자.
 - 1) 지혜롭다. 2) 용기가 있다.
- 16. 왕의 명령이 이번에도 요압에게는 잘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 어떤 점이 그런가?

이번 일의 책임자는 아마사, 아비새인데 나중에 보면 요압이 나서서 일을 지휘하고 있다. 왕명을 받들고 나간 아마사를 함부로 죽여 버렸다.

- 17. 삼하 8:15-18에 다윗의 정부 조직에 대한 글이 있다. 이곳과 비교해서
- 1) 추가된 것은?

감역관

2) 직급이 상향조정된 것은?

브나야의 직급 (관할 장관)

3) 사람이 교체된 부서는?

대신/다윗의 아들들 이라), 서기관/스라야 스와: 같은 사람?)

4) 요압에게는 변동이 있는가?

군대장관 온 군대의 장관

난류(亂類):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불량배.

분의/分誼): 서로 사귀어 든 정을 나누는 것

굴어지다: 뒹굴다.

해자: 능, 원, 묘의 경계, 성 밖으로 둘러 판 못, 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 감역관/監役官): 부역을 감독하는 관리

사무엘하 21 장

1. 2절에 '전에 맹세하였거늘' 언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속여서

2.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족속들은 별 볼일 없는 이방 민족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 기에는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기로 맹세한 민족

3. 이 흉년은 누구의, 무슨 죄 때문인가?

사울의 민족에 대한 열심 때문 (죽이지 않기로 맹세한 쪽속인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왕이 자신의 지위에 위험을 느끼면 이런 엉뚱한 열심이 생기기도 한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그릇된 열심은 때로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민족에 대한 열심이 때로는 국수주의 경향으로 나타날 때 문제가 된다. 인기 없는 자신의 인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족을 희생양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네로, 신나치, 관동대지진)

네 가지 유형의 교장:1) 무능하고 게으른 교장, 2) 무능하고 부지런한 교장, 3) 유능하고 게으른 교장, 4) 유능하고 부지런한 교장

교사의 입장에서 누가 가장 지내기 편할까? 가장 지내기 어려운 교장은? 말하자면 사울은 무능하고 부지런한 교장에 해당함

4. 사울의 범죄에 대하여 왜 이제야 벌하시는가?

사울에게 징계를 가해 봐야 별 소용이 없으면 포기했다가 소용이 되는 때에 하신다. 그 징계가 다윗에 게는 소용이 되니까?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없는 사완이고. 싫어지면 매를 들기도 싫어진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를 들 필요가 없다? 징계에는 교훈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5. 세궴성에서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약속을 어기고 살해를 해버린 민족은 히위 쪽이다(창 35). 약 500여년 정도 후,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을 속이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히위 쪽이다(수 9). 또 500년 정도 지나서 사울이 인종청소를 시도했고 그들의 용서를 얻어야 하는 사람들도 기브온 사람들이다. 본문에는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넓게 보면 그렇고 좁게 보면 히위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던 기브온 거민들의 억울함 때문에 이런 기근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가?

맹세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잊는다는 것은 없다. 컴퓨터의 기억력보다 더 한분이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니)

6. 4절의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고치면?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이나 (=사람을 죽여서 원한을 풀어야 하는 문제이나 우리에 비 그런 권한이 없다)

7.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사울의 죄인가 이스라엘의 죄인가?

주범은 사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십계명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적인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사울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사울의 고향에서 사울의 후손을 죽이는 장면을 보는 사울의 고향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6절)

사울의 친인척은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것으로 여겼는데, 이방 쪽속이요 천한 민쪽의 요구대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하여 다윗에게 적개심을 품었을 것이다. (리스바의 처신이 이 적개심을 풀고 연합하도록 촉매작용을 하게 된다)

9. '보리베기 시작하는 때'만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본 문에서 어떤 의미로)

비가 오지 않는 때 (우리나라의 추수 때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는 의미: 현재 3년 연속 비가 오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리스바가 아들들의 시체를 비가 쏟아질 때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이 된다.

10. 메랍은 사울의 장녀였다. 다윗과 관련이 있다. 한 때 다윗을 죽이기 위한 미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당연히 다윗에게 주어져야 했는데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다. 자신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마는 그것이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여자는 아버지보다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교훈인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필 일이다. 아버지냐 신랑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11. 죽을죄를 짓고 나무에 달려 죽더라도 당일에 장사 지내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저주받은 주검을 나

무에 달아둔 채 그냥 두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였다(신21:23). 그러나 이번 경우는 하나님께 바친 제물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두었던 것 같다. 그러나 리스바의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두 아들 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과 달려 죽은 이들의 시체도함께 가족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리스바의 이런 행위가 무슨 의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도 풀리고 다윗도 이것을 아름답게 여겨서 사울 집안의 원한을 풀어주고 있는가?

원한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기를 기원하는 것 *(*자식을 **돌**보는 모성에에 감동하여 다윗이 사울 집안의 명예회복을 도운 것은 보닉스*)*

12. 리스바는 정말로 한 맺힌 삶을 살았다. 아야의 딸, 사울의 첩(후궁), 남편 전사, 아브넬과 연애(?), 다 윗이 왕이 되면서 신분 강등, 멀쩡한 아들 둘이 처형당함. 이런 리스바가 아들 둘이 죽은 한을 1) 어떻게 푸는 것이 정상인가? 2) 어떻게 풀었는가?

- 1) 하나님과 다윗에게 저주하거나 미치거나
- 2)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질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체를 지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임)
- 13.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7명의 시신을 안장한 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어떤 의미가 전달되는가? 사울가의 7명을 처형하도록 한 것이 다윗의 개인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임 을 확인게 함

뒤늦게나마 가족의 묘에 안장함으로 어느 정도 원한을 풀어줌

나라가 분열될 때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되고 남쪽 유다는 2지파인데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이다. 이 두 지파가 서로 원한을 품지 않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리스바의 행위로 말미암으

(14절의 '그 후'란 처형 후란 뜻일 것, 장사지낸 후가 아니라)

14. 다윗, 아비새, 십브개, 엘하난, 요나단 등 다섯 명의 공통점은?

블레셋의 거인 쪽을 죽인 사람들 (나라를 튼튼히 세우는데 다윗 혼자의 공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협력과 노력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15. 싸운 장소는 어디 어디인가? 왜 한 장소에서 한 사람씩인가?

불명 곱 곱 가드,

블레셋이 장수하나를 잃고 후퇴했다가 다른 장수의 인도하에 다시 도전해오곤 했기 때문.

16. 연부년 기근이 닥쳤던 것이나 블레셋과 전투를 한 것은 대체로 다윗 시대의 초반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두 기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다진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 블레셋과의 관계): 그 후 블레셋의 침공은 사라지는 가? 명맥만 간신히 이어가는 정도로 존속됨 - 다윗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망명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집트와 영토문제가 관련이 있거나 했을 것이지만 어쨌든 블레셋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다.

연부년(年復年): 해가 연속하여, 해마다

사무엘하 22 장

1. 언제 부른 노래인가?

모든 대적을 다 파한 후에: 이런 노래 한편이 그의 전 생애를 다 나타내고 있다. 일생을 시 한편에 담아 둘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설교 작성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한 편의 작품도 생애가 걸린 거야

2.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그 공통점은? (2-3절에서)

반석, 요새, 전지시는 자,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 전부 수비용 (소극적)

3.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시를 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 정한 만족감을 누릴 때이다.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 때는 어떤 때일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 약하고 흔들릴 때(기초가 약하다고 여길 때)

여호와는 나의 요새 - 적에게 쫓길 때

4.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절은?

4, 5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 다녔으니까)

5.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표현하면서 동원한 단어는 다음과 같다. 물결,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짐승을 잡는 올가미).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장면일까?

줄이나 그물에 묶인 채 거센 홍수에 떠내려가는 모습

- 6. 고통스런 나날들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한 일이 있다면 2가지로 요약해 보자? 주제 아뢴 것(7),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삶(20-25)
- 7. 다윗은 스스로 깨끗하게 살았더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

다윗의 깨끗함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규례를 지킨 것이다.

8.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출발점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음을 말해주는 다윗의 표현은 어디 있는가?

26-27: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습이 다르다.

9.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는 모습을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다(8-16).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누구 혹은 어떤 모습인가? 초능력을 갖춘 외계인? 슈퍼맨? 여러분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해 보자. 이 중에서 다윗에게 가장 요긴한 모습은?

전능하신 만물의 주관자이며 나의 구원자. 자식의 수모를 본 성난 아버지

나는 친구라고 말하고 싶다.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줄에 묶인 채 홍수에 떠내려가는 모습이라 했으니

10.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은 능력도 힘도 부족하지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잘 표현한 부분을 찾으시오.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11.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닥쳐오는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하고, 도전적인 자세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어느 말씀이 이런 도전을 주는가?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라고 권하는 말씀)

30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12. 32절부터 다시 처음의 노래가 반복되는 것 같으나 많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처음의 노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내용만 있었음(수비에 치중)

지금의 노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과 그에 따른 결실을 보여줌(수비 + 공격)

13. 다음의 경우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내가 피할 때: 반석, 바위, 요새,

내가 싸울 때: 힘(능력) 주시는 자,

내 원수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는 자.

14. 다윗은 하나님을 바위로 묘사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 했나보다. 설마 바위와 돌이 같은 개념은 아닐 것이다. 어떤 바위들인가?

나의 반석(2), 피할 바위(3), 누가 바위?(33), 생존하시는 바위(47), 구원의 바위(47), 근거가 되는 반석

- 15. 이 시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제목을 붙여보자.
- 1)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1-3): 수비에만 급급했던 때

나의 하나님 (1-3)

2) 대적에게 벗어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다.(4-20)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4-20)

- 3)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21-29)(26-29)*: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됨 의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21-29)*
- 4) 이방 민족을 완파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다(30-46):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게 됨, 나를 조종하시는 하나님(군사 고문단?)

승리주시는 하나님(30-46)

5)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47-51)* 찬양받으실 하나님*(47-51)*

정미(精微):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조금의 흠도 없이 순전함(정밀하고 자세함) 풍성(風聲): 바람 소리

사무엘하 23 장

1. 22장의 노래는 자신의 전 생애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이 노래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결과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짧다. 생애의 마지막 기록인 셈 (왕이 된 초반)

2. 다윗을 가리키는 말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새의 아들: 본래 모습, 평범한 모습/왕을 굳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모욕이 된다)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에게 불리운 이후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돈는 해 아침 빛, 구름 없는 아침, 비온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 - 이 말의 주어인 '저는'이란 말은 원문에는 없다고 한다. 있거나 없거나 값에 다윗의 모습을 표현함과 동시에 메시야 혹은 메시야 시대의 영광스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꽃을 노래하지만 실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노래하는 것처럼

3. 다윗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 중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난할 때 사용한 표현 즉 왕의 권위와 높은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있다.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역하면서(삼하 20:1), 사울이 요나단에게 책망하면서(삼상 20:30), 나 발이 비난하면서(삼상 25:10) - 그런 다웟이 하나님을 힘입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다. 자신을 가리키는 가장 나쁜 말을 본인이 스스로 할 때는 그만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다. 자신감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도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다.

4.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던가?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구원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노래한다. 다윗의 삶은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에 햇빛을 받고 움이 돋는 새 풀 같다고 한다. 그의 집안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한다. 허물도 적지 않았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 (삼하7:15-17)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의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뜻),

5.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였고 기록한 사람의 실력과 특징이 그대로 들어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노래도 다윗의 노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의 말씀이다. 그 이유를 다윗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2)

- 6. 이 노래는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 노래를 부를 즈음에는 다윗의 구원과 소원이 다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다윗의 이 노래는 미래형이다. 또 다른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 먼 훗날의 메시야 왕국: 다윗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 노릇을 하고 있다. 즉 자신의 왕국이 곧 메시야 왕국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사악한 자를 언급하는 것은 메시야 왕국에서는 축복과 심판이 다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노래가 다윗이 받은 복을 자랑이나 하려는 의도였다면 그리 위대한 노래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자신과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한 노래인 듯싶으나 사실은 위대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노래하고 있다.
- 7. 다윗의 군사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을까? 요압은 어디 갔지? 군장의 두목은 몇 사람일까? 요압의 이름이 빠진 이유: 아마 부동의 1인자로 이 모든 사람들의 위에 있었으니 기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불충한 일을 많이 해서 기록을 않았거나, 아마 후자가 그 이유가 아닐까?

두목이 필요한 조직이 두 개 있었다.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군장의 두목(8), 그 3인의 두목(18),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두 개의 삼총사가 있었던 셈이다.

8. 24절에 30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 명단은 몇 명일까?

31명.

왜 한 사람이 더 많을까? 아마 아사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충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용사단은 초창기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9. 다윗의 용사가 도합 37명이라는데 명단에 나온 사람은 실제로 몇 명일까?

36명. 빠진 한 사람은 어디에서 빠졌을까? 13-17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빠졌다면 이 세 사람은 제 2의 삼 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8절에 '그 삼 인'이라는 표현은 앞의 세 용사가 이들을 가리키는 증거일 수도 있다. 결국 다윗의 부대는 군장이라고 부르는 삼 인 그룹이 두개가 있고 각 그룹 밑에 15명씩, 각각의 군장 밑에는 5명의 용사가 소속된 형태였을 것이다. '군 장'을 뜻하는 샬로시란 말은 '삼 인'이라는 뜻도 있다.

10. 베들레헴 우물물이 그립다는 말 한 마디에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밀러오는 사람이나 그것을 마실 수 없다며 물도 마시지 않는 하나님께 부어 드려버린 다윗이나 피장파장이다. 어떤 점에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점: 왕의 한 마디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릴 적 고향의 추억에 빠진 것, 부하들도 만약에 죽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인

가? 전쟁 중에 물 한 컵 뜨러 갔다가 죽었다면...

전심 어린 충성과 부하를 아끼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준 점: 진실된 충성이나 사랑은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 물 한 그릇에 목숨을 걸다니? 그 아까운 물을 부어버리다니? 전도를 꼭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 도무지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행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일 때가 많다. 눈이 삐었다거나 눈에 찌짐 붙었다는 이야기도 그런 셈이다.

11.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린 것이 아닌가?

자신이 실수를 했음을 때달았음: 부하들이 목숨을 걸게 한 실수를 하고서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는가? 부하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이라면 왕이 그 정도 권력을 즐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아래 사람을 진정으로 살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물을 피라고 생각하면 피는 마실 수 없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진정으로 피라고 생각한 것 같다.

12. 다윗이 부어버린 물을 보면서 이 세 용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부어버리다니?

자신을 위해서 시원하게 마시는 모습도 기쁘겠지만 그 물을 자신들의 피로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자신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욱 감동적이었을 것이다.

13. 이 일이 언제 있었길래 다윗은 수도에 있지 않고 아둘람 굴에 있는가?

다윗이 기름부음 받아서 왕이 된 직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다윗을 찾으러) 온 적이 있었다.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요해처로 나갔다(5:17)된 그 싸움인 것 같다. 그러다가 고향 근처에서 싸움을 계속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14.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인가?

이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다윗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 교회를 통하고 어른들을 통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빙자(憑藉): 남의 힘을 빌어서 의지함

구비(具備): 모두 갖춤

영채/營寨): 막사, 군인들의 주둔지

효용(驍勇): 사납고 날쌤, 용감무쌍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쥐가 나서 여호와께 부어드림: 제사의 일종으로 붓는 제사 즉 전제를 드렸다.

사무엘하 24 장

1.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참고: 대상 21:1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라는 말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진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성명을 쓰게 하셨는데 성명을 쓴 사람의 특징이 마치 자신의 글처럼 그대로 다들어 있다. 다윗의 생각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징계에 이용하실 목적으로 그냥 버려두었을 뿐(롬 1:24, 28)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산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묘한 관계이다. 이것은 성명이 성명인 또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 성명이 어느 위대한 인간의 작품이라면 어느 바보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소리를 하겠는가? 바로를 완약해 하셨다는 표현과 바로가 완약했다는 표현이 똑같은 비율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서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 2.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을 두 가지 정도 찾으면?
 - 1) 요압의 지적: 요압도 아는 일인데, 2) 그 마음에 자책함
- 3.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손님을 맞다가 조금 조용해지면 돈이 얼마나 둘어왔나를 살펴보는 것이나,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 진도를 얼마나 나갔나, 얼마나 남았나를 살펴보는 것은 정상이 아닐까? 거의 열 달이 걸려 인구조사가 완료되었다. 국방장관이나 군의 총책임자가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가 평온한 시기였을 것이다.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 왜 실수하게 될까?

싸위야 할 전투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동안의 업적을 뒤돌아보게 된다. 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감사가 나오겠지만 자신이 고개를 들면 사탄이 설치게 된다.

- 4. 인구조사는 나라마다 다 하는 일인데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자.
 - 1) 원래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하고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음(민 1:3, 26:1-2, 출 30:2)
 - 2) 신 17:16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 것)

원리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군사를 더 의지하는 것

원래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하고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아졌는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다윗은 아마 군사적인 목적과 왕권강화에 있었음, 요압과 군대장관을 동원함

- 5. 다음은 요압의 진로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야셀 맞은 편 길르앗 닷딤홋시 다냐안(단) 시돈 두로 히위,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 유다남편 브엘세바 예루살렘
- 1) 처음에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은?

요단을 건너(갓 지역도 마찬가지): 서쪽으로 같다.

2) 거기서 어디까지 올라갔으며 어디서 방향을 틀었는가?

다냐안 (단): 이스라엘의 최북단은 단 지역이다.

3) 가장 남쪽 지역은?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라면 전국을 가리킨다

4) 인구 조사를 위한 본부를 처음 설치한 곳은?

갓 골짜기

5) 이방인까지 조사에 포함시켰으니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알 수 있다. 외국인이나 외국의 지명을 찾아보자.

시돈, 두로,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

6. 한 때 우리나라 군대가 80만 대군이라고 자랑했다. 그 옛날에 동원 가능한 군사가 130만이었으니 다 윗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뿌듯했을 걸

- 7.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좋으신 점은? 거의 일 년, 전에 밧세바 때도 그랬는데, 즉각 손이 올라가지 않는 동작이 느리신 하나님: 스스로 잘못을 깨 닫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 8.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왜?

1) 7년 기근, 2) 왕이 석 달을 쫓겨 다님, 3) 3일 동안 온역

9.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긍휼이 크시니(결과적으로 잘 선택함, 도중에 그만두었으니까), 이왕지사 맞는 것 하나님께 직접 맞는 것이 낫다 - 다윗의 최대 장점: 매사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결정함,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 코람데오 자기의 잘못으로 백성이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10. 다윗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7만이었다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이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 아닌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1절). 다암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니 추측을 할 수밖에. 쉽게 짐작이 가는 전체적이 범죄행위는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에 동조한 죄일 것

11. 죄인에게 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다.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벌은 주기 싫고 주지 않을 수는 없고

12. 여부스 사람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원주민이라는 뜻이다. 아라우나는 뭘 먹고 살려고 모조리 다 드리겠다고 하는 것일까? 말로만 그래 보는 것인가?

아마 왕이 자신의 타작마당에 나타난 것을 무척 두려워했을 것

13. 천사가 하필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을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이곳이며 장차 이곳에 성전이 설 곳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탓이라고 해야겠다.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운 추억(?)이 짓든 장소일 테니까.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닌 것 같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말이 있다면?

필요한 것을 다 드릴 테니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소서 하는 것도 귀한 마음인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대신에 이 작은 것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헌금하는 자세와 비교해 보라. 얼마나 큰 고백인지 알 수 있다.

14. 공짜로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나?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선물로 받은 것을 그대로 또 남에게 선물하면?

온역(瘟疫): 불치의 전염병 도수(모두 都 셀 數): 모두 합한 수

<참고해야 할 구절들>

대상 21:1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통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대상 21:6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대상 21:16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대상 27:24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대상 21:5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일백십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사십칠만이라. (27만 정도 차이가 난다. 기록하지 않은 숫자여서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생겼을 것, 계산에 넣지 않은 두 지파를 추가로 넣는 등의 일도 가능할 것)

대하 3: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메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